

對北정책 原則-일관성 지켜야 한다

지난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의 폐막식을 앞두고 돌연 북한측 고위 인사들이 인천을 방문하였다. 북한 군부의 최고 실세인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직전 총정치국장으로 2인자 소리를 들던 최룡해 당 비서,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도 낯익은 대남사업 총책임 김양건 통전부장 등 소위 실세 3인방이 전격 방문하여 우리는 물론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시안게임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북한팀 선수단을 격려하는데 집중할 뿐 특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2차 남북고위급 대화를 10월 말 개최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북한 고위급 방문단이 우리측의 환대와 기대를 온 몸에 받고 평양으로 돌아간 직후 북한의 경비정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하고 이로 인해 양측간 교전이 벌어지는 등 갈등 상황이 재연되었다.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쳐 북한 군인들의 도발적 행동으로 양측간 총격전이 발생하고 전격적으로 개최된 남북 고위 군사접촉도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 전단이 살포되자 북한은 대북 선전활동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민통선 인근에까지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극도로 반발하며 우리측을 압박하고 있다.

“전쟁중에도 대화” 전향적 입장 밝혀

이같은 남북관계의 급진전, 급반전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한편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는 입장에서 향후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나아가 향후 남북 고위급 대화에서 5·24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전향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와 반복적인 도발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보여주었던 이중적 태도와 무관치 않으며 최근 북한의 대내외 사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대응 자세에 있어 결코 낙관하거나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 해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중심체제가 공고히 되었으나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방향과 내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정책에서 군사안보적 측면과 경험과 인도적 지원 등 중구난방식 접근이나 최근 김정은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3대 세습 수령으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선군정치로 권력 핵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군부가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대남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불안정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은 대외정책에서도 적극성을 보였으나 북핵문제와 폐쇄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불안정한 대내외 정세를 감안하면 북한은 우선 대화의 문호를 열어놓은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대화에 임하되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

특별기고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협상우위 점하려는 北韓의도 잘 살펴야

“핵을 이고 살 수 없다” 기존입장 固守하며 상황따라 신축대응을

고 있으며 회답이나 대화가 여의치 않으면 언제라도 남한의 무성의와 흡수통일의 음모를 제기하며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북한의 이중적이고 도발적인 대남정책의 근저에는 북한의 핵보유, 핵-경제 병진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정당성이 취약하고 국정경험이 미약한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통해 체제보존과 정권유지, 나아가 한반도 정세 주도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3차 핵실험 이후 스스로 핵보유국가임을 내세우며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음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핵-경제 병진정책과 핵군축협상을 줄기차게 주창하고 있다. 핵을 보유한 전제하에 남북대화, 남북경협, 6자회담, 평화체제 등을 구상하는 북한의 강경한 입장과 전략에 맞서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는 북핵불용의 대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집권 중반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외교, 안보, 통일 등 관련 정책의 유기적인 배합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대북통일정책의 비전이자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북핵불용과 튼튼한 안보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대북정책의 대원칙으로 고수해왔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북한이 스스로 핵-경제발전 병진정책을 포기하고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단호대응’ 실제 상황에서 입증해야

남북 대화와 협력은 그 자체가 우리 대북정책의 목적은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우리의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편이다. 따라서 남북 대화나 협력을 위해 우리의 안보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협박과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말 뿐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입증하여야 원칙으로서의 의미와 효과를 관철할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이행을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율해나간다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며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남북 고위급 대화에서는 많은 의제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5·24 조치 문제를 포함하여 이산가족 상봉, 체제비방 중단,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및 인적 교류 문제 등과 함께 북한 경제특구(나선 지구 등 국제 컨소시엄을 활용)참여, NLL 문제와 평화체제문제, 나아가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 해법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이 전단살포 전면중단과 같은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남북 고위급 대화가 재개 되더라도 북핵문제나 천안함포획, 금강산 관광객 피살 등 북한측의 명백한 도발에 대해서는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대북정책 원칙하에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기 위한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K]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회우)



어느 것이 진짜냐?

북한 관련 보도 흥분 속 幻想만 심어

언론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한 진실보도가 생명이다. 수령독재가 지배하는 북한에선 언론은 수령의 신격화에 동원되는 단순한 선전도구에 불과하지만 자유언론은 대상이 누구든, 주체가 어떤 사람이든, 또한 무슨사건이든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공정한 진실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자유세계에서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라 부르기도 하고 목탁(木鐸)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진실보도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진실은 조금만 잘못취급해도 왜곡되기도 하고 깨지는 그릇과 같다.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는 시로 세계적 관심을 모은 탈북시인 장진성씨는 진실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진실은 가공하지 않을수록 설득력 가진다”

진실이 북한학을 이길수 있다는 신념으로 북한주민들의 자유화에 헌신하고 있는 그는 “진실은 가공하지 않을수록 설득력을 가진다”(그의 책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중에서)고 주장했다. 다른말로 하면 가공하면 하면 할수록 진실은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이 글에서 장씨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언론의 대북보도가 현실에 근거를 둔 진실보도가 아닌 ‘가공’된 보도가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북환상을 심어주는 경향까지 있다.

얼마 전 끝난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일에 맞춰 온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등 북한실세 3인방의 깜짝 방문을 예로 들어 보자. 물론 갑작스런 이들의 방문은 정치적 의미가 크고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은 김관진 청와대국가안보실장, 유길재통일부장관등 우리정부고위당국자들과 만나 오찬을 함께 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 받으며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0월말이나 11월초에 갖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이들의 방문을 계기로 꼭 막힌 남북관계가 잘풀릴 것이란 기대감에 흥분했다. 언론은 더 흥분했다. 황병서가 “오솔길을 대통령로 만들자” 고 한 덕담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고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어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처럼 보도했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즘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 오르고 있는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냉철한 검증없이 북한이 손을 내민다고 정상회담까지 운운하는 것은 마치 결혼도 하기전에 애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랫동안 대북협상에 참여한 적이 있는 대북전문가 이동복씨는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환담’ 수준에 불과한데도 마치 큰 회담이 열린 것처럼 흥분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들의 방문 주목적은 북한이 아시안게임에서 전례없는 성적인 7위를 한 것이 김정은의 체육중시정책때문이라는 것을 북한주민들에게 선전하고 김정은의 권력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대해 자신들을 해외에 파견할 정도로 김정은의 권력이 안정돼 있다는 것을 보이기위한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2차고위급회담 합의후 3일만에 서해 NLL(북방한계선)부근에서 해상도발을 하고, 뒤이어 우리 민간인들의 대북 전달살포를 핑계삼아 ‘격멸작전’을 벌이며 2차고위급 회담



도준호

·본회 논설위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北 황병서등 방문에 진정성 검증도 없이 정상회담까지 거론

‘주석’ ‘태양절’등 북한용어 마구사용 선전술에 넘어가는 꼴

전초전 성격인 장성급 회담에서 깡판을 놓은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북한의 이중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지만 2차고위급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정부는 물론 그보다 훨씬 앞서나간 우리 언론꼴이 우습게 됐다.

대북관계에서 우리언론의 앞서 나가는 보도는 고질이라고 할 정도로 오래됐다. 지난 72년 동서화해의 물결속에 남북간 문제 해결을 천명한 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 우리언론들이 그것을 계기로 남북이산가족들이 당장 만나고 고향방문도 이뤄 질 것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고향방문은 고사하고 남북 당국의 엄격한 통제속에 이산가족상봉이 이뤄 진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그후의 회담에서 서신왕래, 고향방문등은 빠짐 없는 매뉴였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북한 직함 그대로 쓰는 것 말도 안돼

대북보도의 또다른 문제는 북한이 쓰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이는 점이다. 우선 호칭문제이다. 북한이 과거 이명박대통령시절 이대통령의 직함을 쓰기는 고사하고 ‘취박이’라 부르고 박근혜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설을 퍼붓고 있는 실정에서 김일성에게는 ‘주석’, 김정일에게는 ‘국방위원장’, 김정은에 대해서는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꼭 붙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객관적보도를 해야 한다는 자유언론의 기본원칙에 따라 직함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런 논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언론이 쓰는 북한관련 용어들엔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북한이 김일성생일을 ‘태양절’이라 부르고 있다. 김일성이 민족의 태양이라는 의미에서다. 또 휴전기념일을 ‘전승기념일’이라고 부른다. 한국전쟁은 지리적으로 따지면 남이 이긴 것도, 북이 이긴 것도 아닌 무승부다.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따질 때는 오히려 남이 이긴 전쟁이다. 그런데도 북이 주민들에 대한 선전용으로 ‘전승’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언론들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태양절’이니 ‘전승기념일’이라고 쓰고 있다.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술에선 용어선점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언론들은 북한의 선전선동술에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언론이 불가피하게 그런 용어를 써야 한다면 ‘소위 태양절’ ‘소위 전승기념일’ 같이 ‘소위’자를 붙여야 한다. 그것이 객관적이다.

북한의 조그마한 화해몸짓을 보고 마치 ‘오동요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온것’처럼 흥분하고 북한의 ‘말 폭탄’이 마치 전쟁이 나는 것처럼 국민을 공포로 몰아 넣는 우리 언론의 뉘비근성은 긴 눈으로 볼 때 남북관계개선에 기여하기보다 후퇴시켰다고 할 수 있다. 장진성씨의 말처럼 우리언론은 진실을 ‘가공’하기보다 진실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고 그들의 눈을 통해 남북관계를 볼 수 있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

‘원로 언론인을 위한 문화탐방’ 신청받습니다

대한언론인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후원으로 아래와 같이 원로언론인을 위한 특별문화탐방행사를 갖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선착순 100명, 신청은 11월 14일 하루만 받습니다.) [주]

*일 시: 2014년 11월 20일(목) 오전 8시

프레스센터 출발

*행선지: 춘천 청평사 및 김유정 문학촌 등
(서울 도착 당일 20시 예정)

*연락처: 732-4797/4798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청평사 경내(왼쪽)와 김유정 문학관(오른쪽).

對北전단 살포는 효과적 평화전략

민간인들이 국가역할 대행한 대북전략

오랫동안 계속돼온 대북 전단살포는 북한의 끈질긴 저항을 받아왔다. 드디어 지난 10월 14일의 전단 풍선에 대해 북한이 기관총발사 등 무장반격을 벌여, 비무장지대 남북진지 사이에서 교전까지 빚었다. 북한에 대한 전단살포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소속의 탈북인사들과 국군 예비역장교들로 구성된 ‘국민행동본부’ 등 민간인 보수 반공진영의 비무장행사다.

대북전단(對北傳單)은 무력대치 속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북한을 교란시켜 타격을 주고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전단은 북한 통치체제의 근본을 비판하여, 그동안 진행돼 온 한국측의 어떤 대북공세 방법보다도 평양 지배층을 가장 아프게 깎아내린 유효전략이었다. 북한군의 발사로 시작된 이번 총격사태는 전단살포의 효과성을 북한 자신이 스스로 증명해 준 사례다.

북한 허구성 - 한국 발전상등 소개

대북전단은 북한체제의 허구와 독재를 폭로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면, 북한 동포들도 한국민이나 중국인들처럼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들이었다. 이번에 발송된 대북전단 내용은 대충 이렇다.

첫째, 6·25는 북한에 의한 남침도발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동안 친북좌파들과 평양측이 6·25는 한국과 미국에 의한 한국군의 북진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홍보하고 우리 학생들에게까지 가르쳐온 북침론(北侵論)에 대한 반박이다.

둘째는 김일성 일가는 백두산과 별로 인연이 없기 때문에, 백두혈통(白頭血統)은 억지조작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혈통을 내건 김일성 일가의 왕조적인 세습독재 부정논리다.

셋째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발전상 소개다. 특히 근래의 한류사태를 설명하는 내용들이다.

넷째는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시작하면 경제발전과 국민자유가 이뤄져서, 북한동포들도 한국민이나 중국인들처럼 발전된 사회에서 풍족하고 자유롭게 살아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희망의 제시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굶어 죽는 동포를 방치한 채, 개혁개방을 거부하면서 폐쇄정책을 고집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에 대한 체제공격이다. 남쪽에서 날아가는 대북전단은 언론자유가 억압돼 관련선전만 들으며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직접 진실을 알리고 희망을 주는 행복한 복음(福音)이다.

“대화기미 살려야” 자제 압박

대북전단은 북한 봉건세습 지배체제의 약점을 핵심적으로 파헤쳐 폭로하여, 김일성일가와 김정은체제의 안정을 흔드는 위협이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정당·언론은 오히려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북한의 요구에 동조하는 경향이다.

정부는 모처럼 생긴 남북대화의 기미를 살려야 한다면서, 전단살포를 자제하라고 압박했다. 여당과 야당도 이에 동조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치 말라는 투다.

언론들도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고 나섰다. 신문과 방송들은 북한의 도발은 비판하면서도, 아시안 게임 폐막 때 북한 고위층 3명이 다녀가면서 문이 열린 남북대화 분위기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어떤 방송이 전단살포 주도자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전화로 불러내 앞으로의 살포계획을 밝히라고 다그쳐 묻자, 분노한 박 대표는 살



구종서

·분회 논설위원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국문명사연구소 대표

북한지배층엔

두려운 비수지만

동포엔 희망의 복음서

표현자유 차원

적극 보호 육성돼야

전단발송 시간·장소

철저히 비밀로 하고

필요하면 사후공표를

포를 계속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실제 살포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국군은 북한의 탄환이 우리 땅에 떨어졌음에도 총격 105분이 지난 뒤에 항의방송을 보내고, 115분이 돼야 북쪽 진지에 대응 발사했다. 그것도 강력한 응징반격이 아니라, 주의하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수준이었다. 이것이 적과 대치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부대의 올바른 자세인가. 응징하려면 철저히 파괴하여 다시는 공격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전투의 기본원리다. 그런 사례는 이미 국군의 DMZ 대결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있어서, 북한의 무모함을 잠재운 효과가 있었다. 북한은 10월 11일 청와대에 전단살포를 저지하라고 통고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제때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틀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시인하는 정도였다.

전단은 어두운 밤에 비공개로 살포해야

북한은 해방 이후 언론의 자유를 봉쇄한채 관련 신문·방송과 주민집회를 통해 조작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북한 동포를 속이며 70년간 통치해 왔다. 그들은 한국정부의 대화 제의를 뒤늦게 받아들이고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살포에 항의하며 총기를 발사한데 뒤이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여 교전을 벌인 끝에 물러났다.

이런 북한에 대해 대북전단은 그동안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주었다. 북한비판은 정부보다는 민간단체가 맡는 편이 낫다. 특히 북한에서 넘어와 북한 사정을 잘 아는 탈북인사들이 더 적임자다. 대북전단은 계속 살포하되, 국민의 우려와 현지주민의 불안을 덜기 위해 살포 장소와 시간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중에 날려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발표할 필요가 있다면, 사후에 공표해도 좋다. 정부가 북한의 전단저지 요청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자유 행사를 금지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전단살포에 대한 자체압력을 버리고 오히려 이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저자세로 추구했던 정상회담 구걸 따위는 청산해야 한다.

2차대전 자초 체임벌린의 실패 교훈 삼아야

우리 정부·정당·언론은 북한에 대해 양보나 협조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세계유일 세력인 북한지배층에 대한 유화정책(宥和政策)보다는, 그들의 꾀박으로 자유와 인권이 억압돼 신음하는 북한동포의 입장에 서서 긴 눈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제1차대전 패전의 혼란 속에서 1934년에 집권한 히틀러는 전후체제를 규정한 베르사유협정을 파기하고, 군사력을 길러 유럽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때 영국수상은 보수당 당수 체임벌린(Chamberlain·1869-1940)이었다. 그는 히틀러의 위협과 유혹에 이끌려, ‘평화를 지켜야 한다’면서 타협정책을 계속하다가, 뮌헨협정(Munich Agreement·1938)을 맺었다. 히틀러는 기존의 실지회복(失地回復)과 차후의 주변국가 무력침공(武力侵攻)이 허용되자, 폴란드 체코 등 주변국침공을 거침없이 계속했다. 그 결과 유화의 기수가 되어 ‘평화의 천사’를 꿈꾸던 체임벌린은 결국 인류최대의 참변인 제2차대전을 자초하여, 오히려 평화를 파괴한 ‘실패의 협상가’로 역사에 기록됐다. 정부·정당·언론은 침략자에게 유화정책을 내걸어 타협했던 ‘한국의 체임벌린’이 되진 말아야 한다. [국문]

전립선 무료검진

11월 22일(토) 프레스센터 12층

희망자 14일까지 신청접수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에 대한 ‘전립선 무료검진’이 오는 11월22일(토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12층 강당에서 실시된다.

이번 무료검진은 한국전립선관리협회(회장 권성원)가 주관해 전문 의료

진들이 맡게되며 삼성언론재단에서 후원하기로 했다.

한국전립선협회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본회 회원들의 전립선 무료검진을 실시, 조기 치료를 받도록 했는데 이 당시 1~2차 검

진에 참여한 회우는 모두 350여명에 달했다. 검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11월 14일까지 대한언론인회 사무처 (732-4798)로 신청바랍니다.(이미 신청하신 분은 제외)

비뇨기와 전문의사인 이윤수 박사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35세가 되면 전립선 비대가 시작되는데 장수를 한

다면 모든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립선 비대증을 장기간 방치 할 경우, 방광과 콩팥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심하면 요독증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이번 전립선 무료검진을 꼭 받을 것을 권했다. [국문]

政治, 더 이상 경제발목 잡지 말라

정치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적(敵)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 여당조차 겉으로만 경제난 극복 운운하지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회의를 갖게 한다.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케하는 극단 상황이 아닌가 한다. 비단 경제분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금 위기의 나락으로 몰리는 양상인 우리 경제를 둘러싼 작금의 정치작태를 보면 정치 무용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기만 할 뿐, 해도 너무 한다는 지탄의 목소리를 정치인들은 듣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도 간과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입법기능을 떠나서는 존재할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걸 모를 사람이 없다. 그러한 국회가 입법을 방기하고 있다면 국민소환제를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해 국회의원들을 새로 선출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만 주민소환제가 적용되고 있어 그렇게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30여개 법안 시간 다뤄 처리해야

일례를 들어 정부는 국회에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부자감세 주장을 내세우는 야당의 발목 잡기로 언제 이 법안을 처리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내놓은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 등 일련의 경제 활성화 조치로 활기를 띠는 것 같던 주택시장이 10월 이후 완전한 소강상태로 돌아섰다고 한다. 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해 꺼져 가는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본회의 이후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안 문제로 5개월 동안 공전했다. 이 기간 동안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9월 30일 151일 만에 본회의를 열어 85개 법안 90개 안건을 일괄처리 했다. 민생과 사회문제 관련 일부 법안이 포함돼 처리됐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여러 차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온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해 5월 24일 발의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상만 증가하고 급여 수준은 줄어 들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국회 계류 중인 경제 법안들이 처리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을 국회가 제때 심의해 정부의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제 민생법안은 특히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제출한 30여 법안처리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부동산 규제완화법안 언제 처리될지 몰라 주택시장 다시 소강

경제 활성화조치 타이밍 놓쳐 물거품될 위기

환경 정비법 등이 그 예이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입법과 행정 집행 모두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부양책의 효과는 물거품이 된다. 국회가 5개월이나 마비됐던 탓에 상임위마다 안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무엇보다 올해야 말로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일 내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 한 해 나라 살림살이야 말로 민생경제와 직결된다. 세월호 법안과 해경 해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더 이상 이들 법안을 놓고 또 다시 정치쟁점화해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밀려 나가 해선 안 된다.

개헌론보다 경제위기 정면돌파 할 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10월 중순 중국 방문 중 상해에서 개헌론을 제기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개헌론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는데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여 청와대와 여당이 따로 논다는 인식을 주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았다. 개헌문제가 그동안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돼 온게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150여석 거대 여당을 이끄는 당대표로서 경솔하기 짝이 없는 처신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위기의 경제를 살리는 일에 고군분투해도 모자랄 시기에 개헌론을 불쑥 내놓는다는 것은 신중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물론 여당은 입으로만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온 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 여당도 이제는 야당이나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고 경제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자세부터 가질 것을 촉구한다.

세계 각국의 경제 주체들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는 것으로 이름 난 인도에서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구시대적인 노동법과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천명했다. 좌파 사회당이 집권한 프랑스에서도 지난 7월 은행원 출신으로 우파적 시각의 에마뉘엘 마크롱을 경제장관에 앉히고, 소매상의 영업자유 확대와 법률, 의약 부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과 특히 일본의 엔화 약세 유도책등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정부도 좀 더 과감한 부양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문제가 있긴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라든가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기업의 주주배당을 확대토록 유도하며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이탈하는 외국자본의 바이 코리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구사해볼직 하다. 재정 확대는 불요불급한 정부 지출 억제와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 개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에 따른 엄청난 마찰과 진통도 뒤따르겠지만 지금은 미온책이나 소극적 처방보다 혁명적 대수술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제를 잃으면 안보도 복지도 모든 걸 잃는다. [국회]

요즈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집값의 50% 미만 이던 전세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는 7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우리 나라가 노령화,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과거처럼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됨에 따라 전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즉,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집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었다. 전세금이 집값의 50% 미만이라도 집주인 입장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집 구입 목적이 임대료 수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를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전세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익이 안 된다. 즉, 3억원짜리 집을 구

입한 경우 전세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야 3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데 3억 원을 그대로 저금하지 굳이 집을 구입해 3억 원 이하의 전세금을 받아 저금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집 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으면 전세 공급은 줄고 반면에 전세 수요는 늘어나 전세 가격은 장기적으로 집값만큼 오를 것이다. 결국은 전세제도가 없어질 것이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전 건설교통부장관

전-월세 대책 발상전환 급하다

주택 가격이 안정된 선진국에서는 전세제도가 없다. 앞으로 주택 임대는 대부분 월세로 전환될 것이다. 임대업자 입장에서 월세는 정기에금 금리 이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부담이 더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월세 규제를 입법화

하려고 한다. 그러나 월세 규제는 오히려 집 없는 서민을 더 어렵게 할 것이

다. 월세가 안정되려면 임대주택공급이 늘어나야 하는데 임대료를 규제하면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은 위축될 것이다. 주택 임대 사업이 수익성이 괜찮다고 생각되어야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할 것이다. 월세 규제는 과거에도 실시한 경험은 있는데 실효성이 없었다. 연간 월세 인상률의 상한선을 정하여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식으로 규제를 괴해한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 주택 중 LH 공사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다주택자 소유이다. 민간 다주택자가 핵심적인 임대 주택 공급자이다. 그런데 아직도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아 세금 중과제도를 계속하고 있다. 즉 양

5면으로 이어집니다.

국정감사 올해도 정쟁 - 파행 구태

독일 정치사상가 막스 베버는 ‘신념 윤리’도 ‘책임윤리’도 없는 생계형 정치인의 출현을 극도로 경계했다.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통해서다. 아무런 정치적 소명이 없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그저 먹고살기 위해, 혹은 더 잘 먹고살기 위해 정치판을 이용하는 천박한 정치적 기식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우리 사회에 회자된 진부한 농담 중에 미녀와 임신부, 그리고 국회의원이 한강에 빠졌을 때 국회의원을 가장 먼저 건진다는 얘기가 있다. 여기서 우린 “한강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는 기막힌 이유를 그저 웃어넘길 순 없을 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란 직군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만연한 지는 오래됐다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대한민국 주요기관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라.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 국회는 11개 조사기관 중 단연 꼴찌였다. 대통령, 대학, 군대, 시민단체 순으로 신뢰수준이 높았지만, 국가 주요기관의 평균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23점에 불과해 국민의 눈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불신으로 가득찬 사회로 투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서도 국회는 2.85점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0점에 가까웠다. 지난 10월초 KBS가 실시한 유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회는 우리 사회 주요기관 중 신뢰도와 사회 기여도 모두 최하위였다. 더군다나 사회 기여도 점수에서 대기업이 5.28로 1위를 차지하면서 다른 9개 집단은 서로 거리가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지만, 국회만 유독 2.75점으로 맨 밑바닥이었다. 한마디로 허구한 날 당리당락을 앞세운 정쟁을 일삼으며 놀고 먹는 국회에 대해 국민 다수가 신물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가 이렇게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자업자득일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장장에서 보인 선량(選良)들의 행태를 보자. 뽐아준 유권자들이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고 해야 할까. 사상 최대인 672개 피감기관을 선정해 놓고도 구태의연한 행태만 보여줬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비리와 낭비요인을 송곳처럼 파헤쳐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의 본령에 근접하지 못한 점은 그렇다 치자. 증인채택을 둘러싼 비본질적 살바싸움, 상대방 의원에 대한 인신 공격, 피감기관에 대한 군기잡기식 호통 등 예의 구태로 온 국민의 혀를 차게 했다. 다음의 두 삽화가 극명한 사례다.

특별기고



구본영

·서울신문 이사대우 논설위원

대안제시커녕

비리폭로나

이슈 파이팅도 없이

‘변죽울리기’만

美 회계감사국처럼

전문 대행기관이

더 효과적일 수도

증인채택 싸고 치졸한 공방

#1 지난 10월8일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감사장. 금융사 수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사단이 벌어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증인합의를 못한 여야 간사에게 “능력없고 하기 싫으면 자리를 내놓고 나가라”고 소리치게 도화선이였다. 이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김용태 새누리당 간사), “한 국말 못 알아듣나”(강 의원), “발언 기회 줬는데 싸우라고 기회 준 줄 아냐”(정우택 정무위원장) 등 치졸한 공방이 이어졌다. 금융사 수장들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국감장에 무조건 출석시키지 말아야 할 법적 근거도 모호하지만, 역으로 반드시 출석시켜야 할 필요성 또한 없는 문제일 것이다. 생각해 보라. 금융사나 기업의 난맥상을 제대로 캐러

오늘의 니대르

이 홍 우(본보 편집위원)



〈10월 8일 채널A TV 시사법방 방영〉

면 총수를 불러 호통을 치기 이전에 담당 임원을 불러 따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여야가 적정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서로 핏대만 올린 꼴이다.

해외서 뮤지컬 관람 혈세낭비도

#2 10월13일 외교통일위의 주중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감은 현대자동차 베이징 공장 견학과 중국의 대형 뮤지컬 진미엔왕차오(金面王朝) 관람으로 시작됐다. 현대자동차의 현지 공장 견학은 억지로 명분을 갖다 붙일 수 있다고 해도 뮤지컬 관람은 모럴 해저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란 점에서다. 특히 국내에서는 사사건건 말싸움을 벌이던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 눈을 피해 많은 적든 해외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

에는 의기투합한 것도 가관이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새정치연합 이해찬, 김성곤, 심재권 의원과 함께 공연 관람에 동참한 것이다.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국감 기간 동안 피감기관과 저녁식사도 피하겠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연이 식언이 되고만 꼴이다.

더욱이 새정치연합 의원 중에는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돼 고소당한 김현 의원도 있었다. 이처럼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진 국정감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구태가 더욱 두드러졌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등을 빌미로 국회가 장기간 헛바퀴를 돌리는 탓에 의원들의 준비가 태부족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감 기간 동안 피감기관이 마련한 인쇄물 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4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나 국감장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한번 읽어 보거나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렇지 않다면 발언중인 동료 의원을 겨냥해 “재는 뭐든지 빠딱!”이라고 수군거리는 메모로 시간을 때웠겠나 싶었다. 이쯤되면 국정감사 무용론이 새삼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대안 제시는커녕 딱부러진 비리 폭로나 이슈 파이팅도 없이 그저 개인적으로 주목받기 위한 ‘변죽 울리기’가 국감장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고 있으니 말이다. 미국 의회는 우리처럼 20일이란 기간 동안 의원들이 국정감사 활동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일년 내내 국정감사를 대행해주는 직속 감사기관을 두고 있다고 한다.

회계감사국(GAO)으로 불리는 이 기관은 방대한 전문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으로 그야말로 ‘송곳 감사’를 벌인다. 의회는 GAO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만 청문회를 열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쟁이나 의원 개개인이 주목을 받기 위해 튀는 발언, 다시 말해 인기영합성 발언이나 막말로 시간을 낭비할 소지도 없다. 일본계 미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그랬던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라고. 가뜩이나 불신받는 국회가 아닌가. 그런데도 호통과 말싸움 뿐인 구태의연한 국감으로 행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못한다면 결국 손해는 국민의 몫이다. 차제에 우리 국회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눈을 돌리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국]

4면에서 이어집니다.

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아직도 중과대상이다.

경제 문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주택 임대료를 안정시키려면 임대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우선 LH 공사와 지자체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LH 공사의 부채가 130조원이나 되고 지자체도 복지정책으로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 부문에서 임대 주택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임대 사업자인 다주택자를 중과세하고 임대료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에게 저리자금을 융자하고 재산세, 양도소득세등도 감면 하는 등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과거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현재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임대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는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

육성 대책을 추진해야한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다주택자 지원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생각하여 규제하면 임대주택은 누가 공급 할것인가? 여건이 바뀌었는데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

對北전단 살포 “방법 바꿔 계속” 촉구

10월10일 탈북자 단체가 강원도 연천군에서 날린 대북전단에 북한군이 14.5밀리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해 일부가 남한에 떨어지고 아군이 북한군 GP에 대응 사격하는 총격전이 발생했다. 김정은 독재의 철옹성을 부술 ‘에볼라 바이러스’로까지 비유되는 대북 전단의 영향이 얼마나 컸으면 총격을 했을까하는 분석이 나왔다. 군복 입고 등장한 북한 실세 3인방의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으로 유화무드를 한껏 부풀린 뒤 대북전단 공격을 가한데 대해 주요 신문들은 정전협정 위반의 군사적 도발이고 남남갈등 유발이라고 비판했다. 좌파 세력과 매체들은 대안 제시도 못한 채 ‘전쟁’ 운운하면서 빨리 막으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민간 단체들은 총격 이후 좌파 세력 등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전단을 계속 보냈다.

“전단 풍선 총격은 군사도발”

전단 총격에 대해 동아일보는 13일 사설 ‘대북 전단 놓고 北 의도대로 南 南남갈등 벌일 건가’에서 “북의 노림수는 뻔하다. 남측에 겁을 줘서 ‘상호 비방 중지’를 명분으로 끈질기게 요구해온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관철하려는 속셈이다. 전단 살포 반대 여론이 우리 내부에서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총격 도발을 한 뒤 관영 매체를 동원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압박에 나섰다”고 봐야 한다. 본질은 북의 도발이지, 대북 전단 살포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중앙도 “북한이 민간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고사총을 발사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한겨레는 “공중을 향해 쏘았다는 하나 결국 남쪽으로 사격한 것이어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경향도 “변명 여지가 없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전단 살포에 대해 문화일보는 13일 사설 “北 주민에게 ‘진실·자유’의 정보’ 계속 보내야 한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처참한 실상, 외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알리는 일은 대한민국의 임무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다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북한 권력의 협박 때문에 이런 일이 결코 위축해서는 안 된다”고 전폭 지지했다. 동

아도 “대북 전단은 밀폐된 북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외부정보 유입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 회장은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은 국제법 위반도 아니고 북한 인권보호와 개선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북의 알레르기 반응은 감춰진 진실이 북 내부에 확산돼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도 “對北 전단 살포가 ‘南南 갈등’ 불씨 되지 않도록 해야” 사설에서 “상당수 탈북자들은 우리 측에서 보낸 전단을 통해 처음으로 6·25가 남침이라는 사실

을 알게 됐고, 김씨 왕조의 허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처음 접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두려워서 김씨 왕조의 폭압 아래 바깥세상과 단절돼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긍정적으로 썼다.

전단은 민간의 자발적 대북심리전

아시아투데이는 12일 ‘민간의 대북 전단살포 중단해서는 안될 이유’ 사설에서 “북한은 우리의 대북 전단내용이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행동’이라며 이것이 총격의 주요원인을 드러냈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 대통령들을 향한 패설과 욕설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보안법철폐와 미군철수 주장,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중인 이석기 옹호, 세월호 참사를 남남갈등 ‘거리’로 삼은 것 등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의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행동’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국지전, 남한 내 종북세력을 지원하는 비대칭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흔들며 대고 있다. 전단살포는 민간의 자발적인 대북 심리전이다. 만일 대북 전단살포를 중단한다면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해서 더 큰 무력공격 위협을 가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살포는 비공개로 심야에”

풍선 전단 살포를 주장한 신문들도 방법의 변경을 촉구했다. 문화는 “비공개나 야간에 하는 등 방법을 바꾸고, 전단 내용도 북한 주민에게 더 다가갈

“보여주기 보다 실질효과 겨냥” 남남갈등 조장 일부 세력 비판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은 그 최소한이다. 국내는 물론 제3국에서 발신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 등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시아투데이는 “민간단체들도 남북한 관계를 예의 분석해 풍선 띄우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아는 “북에 발미를 주지 않도록 심야에 풍선을 날리는 등의 전략적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보여주기식 행사는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만 키운다. 대북 전단을 보내는 방법도 종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이 보낸 전단처럼 효과없다’ 강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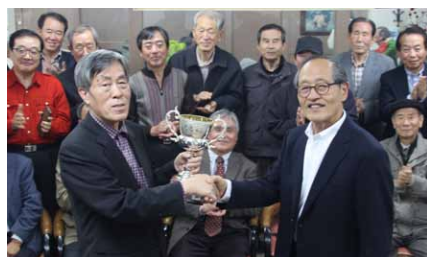
반면 중앙은 “대북단체들은 남북 관계가 외줄타기를 하는 상황에서 전단을 꼭 살포해야 했는지는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라고 회의적으로 썼다. 한국일보는 11일 ‘남북 총격까지 부른 대북전

단 살포 자제해야’ 사설에서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해서다. 반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강행으로 그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전단 살포를 방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무책임한 처사다”라는 논리를 펼쳤다. 허나 3대 세습독재 체제 유지에 급급한 폭압 왕조가 남북회담 몇 번 한다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계몽 군주로 갑자기 바뀔 리 없다. 한국일보는 “70~80년대에 북한이 남으로 띄운 비라가 아무 효과가 없었다”며 대한민국이 북으로 띄우는 전단도 그럴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겨레는 25일 “대북 전단 ‘불장난’ 구경만 할 텐가”사설에서 “비방 전단을 휴전선 북쪽으로 살포하는 것은 남북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 단 1%의 전쟁 위험이라도 있으면 미리 막는 게 정부의 책무다”라고 주장했다. 전단에는 철권 독재가 봉쇄해온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도 가득하다. 북한은 평화적인 전단에 총이 아니라 평화로 반론해야 비례의 원칙에 맞다. ‘국민 생명’과 ‘전쟁’ 운운은 남한의 전단 풍선에 북한의 요격이 당연하다는 친북적 논리가 깔려있다. 조선은 28일 “전단 안 막으면 대화 어렵다’ 北 협박, 가당치 않다” 사설에서 “북한은 전단을 막아주면 고위급 접촉을 선물로 주겠다’는 식의 선전전(宣傳戰)만 계속하고 있다. 처음부터 대북 전단을 막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지한 남북 대화는 안중에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이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북이다. 우리 안의 일부 세력은 그런 북한의 뒤를 쫓아다니며 곳곳에서 남남갈등의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북이 이런 남쪽의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정론을 펼쳤다. 전단 살포에 큰 역할을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탈북자 출신 박상학 대표는 2013년 5월 뉴욕인권재단이 수여하는 바츨라프 하벨 인권상을 수상했다. 대부분의 한국 신문들은 이 팩트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 민주화에 눈감고 있음의 증거다. [E]

동아 - 조선 사우회 바둑대회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태선·대한언론인회 부회장)와 조선일보 사우회(회장 인보길·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의 연례 친선 모임인 제 12회 광화배 바둑대회가 지난 10월 24일 소공동 한성기원에서 열렸다. 해마다 양사 사우회가 번갈아 가며 주관하는 이날 대회에선 동우회가 17대 10으로 이겨 역대전적 6대 6 동률을 이뤘다.

이 바둑대회는 12년전에 창설되어 한해도 빠짐없이 열리고 있다. 1급 3명, 2~3급 3명, 4급이하 3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리그전으로 총 27번의 대국으로 승부를 가린다. 양사 사우회에는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다. 이 날 대국이 끝난 뒤에는 격년제 주관 순서에 따라 조선일보사 측이 무교동 음식점에서 푸짐한 뒤풀이 만찬을 베풀어 40여명이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E]



조우회 인보길 회장(오른쪽)이 동우회 조관호 바둑동호회 회장에게 우승컵을 주고 있다.

언론가 소식

한국경제신문 창간50주년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0월 6일 창간 5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념식을 갖고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경제 대도약 선언의 배경에 대해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 정치 환경을 볼 때 새로운 50년의 각오를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NIE공모전 시상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지난 10월 2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신문협화와 공동으로 2014년 ‘신문사랑 전국 NIE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에는 주제신문 만들기, 올해의 학교신문, 학교 공동체NIE에세이(소평론)쓰기, NIE 사례, 아이디어 등 5개부문에 459개 작품이 출품돼 모두 42명의 교사 학생, 15개 학교가 수상했다.

‘북’인가? ‘북측’인가? ‘북한’인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요인들이 불쑥 나타나자 방송 보도는 상당한 혼선을 빚었다. 현장에 나가 있던 방송기자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비쳐졌다.

‘출국’ ‘귀국’ 등 헛갈려

그들이 평양으로 출발하기 직전, 방송들은 각기 다른 용어를 썼다. 국가간방송 KBS는 ‘출국’이라고 하고, 어느 종편 기사는 ‘귀국’이라고 하고, 연합뉴스TV는 ‘귀환’이라고 했다. 과연 어느 표현이 맞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출국이란 나라의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이며, 귀국이란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것이다. 헌법 정신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다. 따라서 ‘귀환’이 맞다. ‘출국’은 한반도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뜻이며, ‘귀국’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다음에는 북한에 대한 호칭 문제다. 방송들은 ‘북한’, ‘북측’, ‘북’을 혼용했다. 이 경우, 분단 당시 독일의 경우가 참고가 된다. 서독 언론은 동독을 그들이 말하는 정식 명칭으로 부르지 않았다. 약자로 DDR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서독은 언제나 ‘독일연방공화국’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불렀다. 이 경우를 원용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북은 ‘북한’이라고 부르면 된다. 이 표현은 언론 이전에 국민들은 이미 상용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은 왜 허둥대고 혼용하는가?

한 마디로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과 대화를 하는 당사자들은 상호 약속에 따라 ‘남측’ ‘북측’으로 호칭하는 게 맞다. 그러나 언론은 회답 당사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북한’으로 보도하면 될 일이다. 북한 언론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는가? 그러지도 않는데 괜히 우리만 우왕좌왕

하는 것이다. 분단 당시 동독이 호칭 문제로 서독과 대립했는가? 그러지 않았다. 호칭은 부르는 사람의 원칙과 편의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요인 3인방의 등장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다. 북한 권력 서열 2위와 3위, 4위가 왔다고 보도했다. 그 실체야 김정은 위원장만 알 것이다. 언론들은 미소 짓고 있는 그들의 표정을 집중 보도하며 남북간에 훈풍이 일 것처럼 법석을 떨었다. 어느 시인은 그들의 방문을 찬양하는 시를 유력지의 1면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분석한다는 종편들의 술한 대답

방 송 시 평



유자효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의 동정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일이 사전 조율 없이 요구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원수 관련 보도가 요즘처럼 춤추고 있는 때도 없었던 듯하다.

김정은의 잠적과 북한 요인들의 방문을 둘러싼 언론들의 호들갑은 그뒤 지팡이를 짚은 김정은의

사진이 북한 매체에 보도되고, 대북 전단 풍선에 대한 북한군의 발포와 북한군의 잇따른 군사분계선 도발 그리고 파주 남북 총격전 사건이 터지자 일시에 찬물을 맞듯 쪼그라들고 말았다. 북

독은 국민 정치교육을 강화했다. 다시는 나치와 같은 극단적 국수주의가 나타나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국가적, 범인류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여기에 언론 특히 방송의 역할이 컸다. 그래서 갑작스런 통일에도 정치적, 이념적 혼란은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서독의 위상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굳건했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방송은 서독 국민들에 대한 정치 교육과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통일에 기여했던 것이다.

방송을 통한 대북 홍보는 과거 KBS의 대북 방송이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노동당 고급 간부들에게’ 같은 프로그램은 북한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소개된 대한민국의 뉴스와 예능 프로그램들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탈북자들은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대북방송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에서는 북한 요인들을 꼬박 꼬박 직함을 붙여 호칭하고 있어 뚜렷한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방송사 간부들은 기자들에게 대북 보도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해주어야 한다. 이는 기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적 가치관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한다. 평화 통일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감한 상대가 있는 사안에 추측성 보도나 무책임한 개인적 의견의 개진 등은 삼가도록 편집자들이 확고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런 보도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이 지켜질 때 이번과 같은 남북 관련 보도의 파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4면]

방송용어 원칙없이 우왕좌왕 北인사 仁川방문 추측만 量産

프로그램들도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었다. 어느 종편에서 한 전문가는 ‘김정은이 지금 위중하며, 북한내 급변 사태에 대비해 저들이 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종편에서는 ‘김정은은 별 일 없을 것’이라면서 ‘자기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북한 요인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는 설, 거꾸로 청와대가 대통령 면담을 제의했으나 그들이 사양했다는 설들도 떠돌았다. 도대체 한 사안을 놓고 어떻게 이런 정반대의 시각이 유포되고 있는 것인가? 이러다가는 방송이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될 우려마저 있다. 더욱이 대통령 면담설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관련해 조금의 상식만 있어도 알

한의 냉탕 온탕 전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 관련 보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는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평화 통일은 우리 민족 지상의 과제이자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70년을 헤아리고 동족 상잔의 참변마저 겪었으면서도 왜 아직도 우리 언론들이 이렇게 허둥대고 있는 것인가?

원칙 - 가치관 분명해야

그것은 원칙과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

회보 193호 발행

중앙매스컴 중앙매스컴 사우회(회장 김원태)는 지난 9월 30일자로 사우회보 ‘중앙매스컴’을 발행했다. ‘꽃보다 청춘’ 제하의 머리기사가 돋보인 이번호엔 지난 9월 6일 대전 유한킴벌리 시찰소식이 눈길을 끈다. YB 친선바둑대회, 사우회 카페 활성화 방안 마련 소식과 ‘중앙일보 구독확장 캠페인’ 소식등이 실렸다. 중앙일보 확장의 경우 부당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목회, 맛사랑, 큐사랑, 동부회, 윤우회 등 다양한 친목 모임도 화제거리다.

대둔산에서 단합대회

한국경제 환경사우회(회장 엄영섭·본회 회우)는 지난 11월 7일 충남 진산면 대둔산 기슭에서 올 하반기 역사문화행사를 가졌다.

사우회 소식



행사에 참가한 40여명의 사우들은 이날 구름한 점 없는 가을하늘에 감탄하며 모두들 웅장한 산세에 놀라곤 했다.

한편 엄영섭 사우회장은 이날 “올해도 회원들 모두가 사우회 발전을 위해 땀 흘려 단합하고 사우들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2시간여 행사를 마친 회우들은 이 지역 토속음식점에 들러 오찬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청계산으로 가을산행



헤럴드사우회 헤럴드 사우회(회장 윤익한·본회 상담역)는 지난 10월 25일 청계산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가을산행을 가졌다.

하산 후 마련된 오찬장에서 너무 긴 시간에 걸쳐 지칠 줄 모르는 정담이 오고가 식당 측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회우들은 헤럴드 사우회(코리아 헤럴드와 헤럴드 경제 출신으로 구성)를 “더욱 더 기다려지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오는 12월 8일(월)로 예정된 금년 송년회에 이심전심의 뜻을 담아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자는 결의도 다졌다.

사우회보 32호발행

SBS사우회 SBS사우회(회장 김수웅)는 지난 10월 1일자로 사우회보 32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4면 컬러판으로 나온 이번 호는 SBS사우회 창립 8주년 소식을 머리기사로 하여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방송재능 기부 봉사활동’, 2014 송년회 TFT 구성, 원로사우 초청 영화감상회, 수목화동우회 소식 등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때 그 현장 못다한 이야기’

제 4집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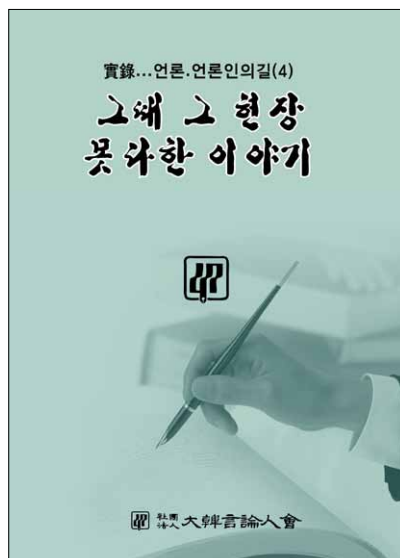
11월 4일 출판기념회

대한언론인회는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 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 제4집을 출판하고 오는 4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은 퇴직 언론인들이 재직 중에 겪은 보람과 아쉬움 등 생생한 증언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이번 4집엔 본회 회우 30명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집필자

고수웅(高秀雄) 권기진(權基鎭) 김규문(金奎文) 김담구(金聃九) 김두호(金斗鎬) 김성환(金星煥) 김용발(金容發) 김종일(金鍾一) 김휴선(金休宣) 노영순(盧永舜) 노재성(盧在成) 류철희(柳喆熙) 문 청(文淸) 박기병(朴基秉) 박세호(朴世鎬) 박 실(朴實) 서옥식(徐玉植) 윤기로(尹起老) 윤기병(尹奇炳) 윤재홍(尹在洪) 이병국(李秉國) 이준호(李俊浩) 이항숙(李享淑) 장석영(張錫英) 정구종(鄭求宗) 정서구(鄭書九) 조강환(曹康煥) 최명우(崔命宇) 최택만(崔澤滿) 황원갑(黃源甲)



◇간행 위원

자문위원: 신우식(고문) 제재형(고문) 조창화(고문) 홍원기(명예회장)
발행인: 김은구(회장)
위원장: 윤익한(상임이사)
위 원: 문명호(주 필) 맹태균(홍보출판위원장) 성낙오(편집위원장) 정진석(외국어대 명예교수)
주 간: 정운종(상임이사)

언론인 167명의 自傳앨범

대한언론인회가 네 번째로 발간하는 ‘그때 그 현장 못 다한 이야기’에는 언론인 30명의 글이 실렸다. 발간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67명이 글을 썼다. 첫 해에는 58명이었고, 두 번째로 펴낸 2012년에는 42명, 세 번째인 2013년에 37명이 수록되었다. 이번 네 번째 발행으로 누계는 167명이 되었다.

167명의 글은 내용과 형식이 아울러 다양하다. 특종기와 함께 아쉽게 놓친 낙중기도 있다. 자신이 걸어온 언론 인생의 애환, 보람 있었던 순간, 감추어 두었던 ‘못 다한 이야기’도 있다.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또는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특종을 포기한 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들어 있다. 알려진 사건의 취재과정도 물론 흥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언론인의 글을 읽어보면 당시 언론계의 정황, 각자가 속해 있던 언론사의 인적 구성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개별 언론사의 사사(社史)나 언론사 연구자들의 기록에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필자들의 개별 경험담에서 복원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책을 읽는 재미인 동시에 기록물로서의 가치다.

네 번에 걸친 책을 모아보면 167명 언론인의 자전(自傳) 앨범이 된다. 언론인은 유니폼이 없다. 넥타이 맨 정장

祝刊辭



정진석

·한국 외국어대 명예교수
·본회 명예회우

차림의 모습에서 캐주얼 복장의 편안한 자세로 지난날을 뒤돌아보는 글도 있다. 기행문 형식의 취재기도 있다. 다양성과 자유분방함 속에서도 특종을 찾는 노력과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는 동일하다. 우리의 기억에 깊은 인상을 남긴 큰 사건의 이면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찾는 재미를 맛 볼 수 있다. 소련 영공에서 벌

어진 KAL기 피격사건 경험담이 3건이나 있고, 아웅산 폭파사건도 있다. 역사적인 큰 사건을 각자의 위치에서 취재한 소중한 자료다.

같은 직종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쓴 글을 모아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직군(職群)은 언론계 외에는 없다고 본다. 문인들도 글 쓰는 직업이지만 그들은 조직을 통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각자 개인 작업으로 창작을 한다. 문인들도 창작물을 모은 전집은 있다. 하지만 같은 직장의 선후배가 연관된 언론인의 글 쓰는 작업과는 다르다. 언론사라는 조직에 속한 많은 기자와 경영진들이 힘을 합쳐 다른 언론사와 분초를 다투는 경쟁을 벌이면서 만들어낸 뉴스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이 언론인이다.

글을 쓴 언론인들의 경력도 제각기 다르다. 신문 방송 통신의 각기 다른

23회 대한언론상 시상

대한언론인회는 2014년 대한언론상(제23회) 수상자를 선정하고 11월 4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올해의 대한언론상은 육군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심층 보도한 KBS정치외교부 윤진, 황현택 기자(취재보도부문)와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특별 공로상)에게 돌아갔다.

〈2014 대한언론상 심사위원〉

위원장 이형균(본회부회장) 위원 김영환(편집위원) 김진기(논설위원) 윤기병(상임이사) 이태영(상임이사) 간사 정운종(상임이사)

수상소감

‘오답’을 ‘정답’으로 바로잡은 보도

윤진 KBS 정치외교부 기자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보도로, 왜곡될 뻔 했던 사실들이 몇 가지 바로잡혔습니다. 사망 원인이 가장 큰 부분이죠. ‘기도폐쇄성 질식사’와 ‘다발성 총격에 의한 쇼크사’는 상해치사나 살인이나를 가를 만큼 중요한 팩트였습니다. 군대에 가 보지도, 법의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제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문제는 간단했고 주어진 힌트는 많았습니다.

군 내부의 전문가들은 오답을 골랐고, 오답이 정답이라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KBS 취재팀의 보도는 ‘오답’을 ‘정답’으로 바로잡는 역할까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오답’을 골랐는지는 밝혀내지 못 했습니다.

수상 소식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저희에게 상을 주신 의미,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못 참으면 임 병장, 참으면 윤 일병’

황현택 KBS정치외교부기자

군(軍)은 선팅을 한 차와 같았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안보’를 위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부조리가 가득했습니다. KBS 보도팀은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취재하며 의료인과 법조인, 법의학 전문가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하나 보도했습니다.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GOP 총기 난사 사건을 빚대 ‘못 참으면 임 병장, 참으

면 윤 일병’이란 말이 돌았습니다. 군은 이제 구타와 가혹행위를 ‘이적행위’라고 합니다. 뿌리 뽑겠다고 약속 합니다. 병영문화의 혁신을 다짐했고 많은 개선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는데 많은 게 바뀌어 보입니다. ‘2014 대한언론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에 담긴 영광의 무게만큼 더 분발하겠습니다.

6·25 참전언론인 명예동판 헌액 보람 느껴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

뜻밖에 영광스러운 대한언론상(특별 공로)을 수상하고 보니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내가 6·25 참전언론인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6·25 참전 언론인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명예회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6·25참전체험 책자발간, 전적지 답사, 참전언론인 명예동판 헌정사업을 추진했던 일이 공적으로 인정받았으니 고마울 뿐이다. 지난 6월 30일 프레스 센터 19층 프레스클럽 입구

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언론인과 종군기자 이름을 동판에 새긴 명패를 영구 헌액했다. 동판 명패에는 “위국 헌신의 정신으로 6·25전쟁에 참전 및 종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선진조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 6·25참전언론인들의 빛나는 공헌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라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다. 이를 성사시키는데 도움을 준 당시 감관진 국방장관등 관계자들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여러 매체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특파원으로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내근 부서에서 일생을 보낸 경험을 짧은 자서전 형태로 쓴 사람도 있고,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상세하게 기술한 경우도 있다. 수습기자 시절부터 퇴직할 때까지 한 언론사에만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문과 방송을 넘나들며 여러 언론사를 옮겨 다닌 사람도 있다.

앞으로도 글을 쓸 퇴직 언론인은 수없이 많다. 아직 쓸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은 퇴직 언론인도 많고, 형편상 차례를 넘긴 분들도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자들도 언젠가는 퇴직할 날이 온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원고를 모으고 책을 만든 대한언론인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재외국민 2세 兵役의무 적극수행 다짐

대한언론인회 - 재외동포언론인협회 국제 심포지엄

대한언론인회(회장 김은구)는 재외동포언론인협회(이하 재언협·회장 김훈)와 제3회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을 지난 27일부터 닷새 동안 공동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재외국민 병역법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재언협 회원 40여 명과 대한언론인회 임원 30여 명, 국내 각계인사 30여 명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막식을 필두로 진행되었다. 재언협 참석회원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20개 국 30개 도시에서 왔다.

CBS 권영철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심포지엄에서 이연우 병무청 재외국민 병역담당관은 주제인 ‘재외국민의 병역의무’를 발표했으며, 고직순(호주 한국일보 발행인)씨 등 재언협 멤버 7명이 패널리스트로 참여했다.

이연우 담당관은 “재외국민 2세는 18세 이후 국내 통산 3년 이상 체재했을 때와 부모가 영주귀국을 신고했을 때 일반 이주자로 전환 관리되어 병역의무가 부과 된다”고 전제한 뒤 “영주권자의 입영 희망원 신청은 2004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무청은 해외 한인 단체 설명회, 뉴스레터 발송, 영주권병사 군생활 체험수기 발간 등 꾸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개막식에서 본회 김은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외 언론인 여러분은 민간외교사절로서 동포사회의 구심점이자 교민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 뒤 “4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언론인회 600여 원로 언론인들은 앞으로 여러분과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기념 촬영.



김은구 본회 회장 인사말.



김훈 재언협회장 개회사.

돈독한 우의와 교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재언협 김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재언협에 대한 관심과 위상에 깊은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복수국적 확대, 선거권 참여확대, 병역의무, 동포자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동포처(청)설립 등 공통 현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 모국과 동포사회가 하나 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창영(새누리당 재외국민 수석 부회장)의원,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이 축사를 했다. 이어 대한사랑회의 ‘한민족이 잃어버린 문화와 역사 되찾기’와 김경호 국장(국민일보·언론학박사)의 ‘디지털환경 도래에 따른 미디어 시장의 변화 및 대응전략’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일행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으며 이에 앞서 JTBC를 방문했다.

28일에는 수원 삼성전자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들른 뒤 조충훈 순천시장 주최의 만찬에 참석했다. 29일은 순천만 정원 및 생태공원에 대한 현장취재를

하고 박홍률 목포시장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30일은 목포시의 김대중노벨기념관 등에 대한 현장취재 후 보성군에서는 선진농업, 문화관광, 복지 및 친환경 현황을 취재했다. 일행은 이 부용 보성군수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31일은 김판선 보성군의회 의장과 의 조찬간담회에 이어 보성생산자협회의 회측의 안내로 홍보영상 관람 및 현장 취재를 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본회 김은구 회장을 비롯해 고문, 명예회장, 이사, 자문역, 상담역 등 다수의 간부들이 참여했다. 본회는 지난 4월 재언협 대회 때부터 행사를 공동주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중앙선관위, 전라남도 등이 후원했다.

대한언론인회는 지난4월 재언협과 함께 처음으로 재외동포언론인대회를 공동주최한 바 있다. 재언협은 지난 2002년 창립되었으며,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다. [4]

‘100자 발언해’

‘君勞臣逸’

북한은 최근 매체를 총동원해 40일간 집거 끝에 나타난 김정은에게 ‘君勞臣逸’이란 말로 찬양했다. 한글전용의 북한매체들이 어려운 4자 성어까지 동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도자가 열심히 일하시니 인민은 편하다는 뜻이다. 본시는 ‘臣勞君逸’(백성은 땀흘리는데 임금만 편하다)인데 북한 매체들이 아부하느라 말을 뒤집은 셈이다. 한데 하는 일 없이 국회에서 매일 싸움박질만 하는 우리 ‘선량님’들에게는 본래의 사자성어라야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용우(논설고문)

설익은 훈계

설훈 의원님께 드립니다.
62살이시라는 데 맞나요.
훈계는 하셨는데 설익어 보입니다.
79세면 판단력 떨어지니
집안에 처박혀 있으라 하셨습니다.
72세에 대통령된 분은
지금도 존경하시지요?
그러면 74세인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노인복지 말씀들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쓰시던데
그럼 나는 죽어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일 할
무언가를 주세요
잘못 없다 하시네요
사과 안 하신다네요.
텔레비전을 보니깐요.
설 의원님 답을 주세요.
살아야 하나요 죽어 버릴까요.
호천웅(편집위원)

노인자살률 1위-국가가 나서야

한국인의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0년 연속 1위를 기록. 이는 인구10만 명 당 29.1명으로 OECD 평균 12.1명보다 170명이나 많다. 더구나 1990년 이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5배 이상이나 급증. 특히 노인 자살은 사회적 관심도 없어 사회와 가족으로부터도 외면 받는 실정. 이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이보길(회원사업위원장)

추락하는 한국경제-아직도 남의 탓만...

휴대전화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TV 등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5대 주력산업의 매출증가율과 대외경쟁력이 하향일로라고. 업계는 세제개선, 기업규제완화 같은 공급확대정책 미흡이 원인이라고 변명으로 일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인들이 사명을 외면한 채 소리(小利)를 탐하는데 여념이 없는 등 기업자체의 경제적 역동성 악화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끝내 귀를 막고 있는 것이 답답할 뿐...

최병요(편집위원)

한국 老人 ‘세계 福祉 지수’ 너무 낮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보다 낮은 지수

‘세계노인의 날’인 10월 1일 충격적인 뉴스를 만났다. ‘2014 세계 노인복지 지수(GAWI)’가 발표됐는데 한국은 필리핀보다 낮았다. 베트남 중국보다도 낮았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은 참담했다. 수치스러울 정도로 비참했다. 국제 노인 인권 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96개국 노인의 사회적·경제적 복지 수준을 조사했는데 한국은 50위로 필리핀 44위, 베트남 45위, 중국 48위보다 낮았다. 한국은 필리핀이나 중국보다 1인 당 GDP가 4~13배 높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요 ‘풍요의 역설’이다. 한국의 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룰 만큼 발전했는데 노인의 삶은 더 고달프고 행복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번 조사는 소득 안정성, 건강, 고용과 교육, 우호적 환경 등 4개 영역에서 진행됐는데, 2014년 한국 노인의 자화상은 경제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안정성은 96개국 중 80위로 바닥권이었다. 한국은 상당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노인 47.2%가 중간 소득의 반도 안 되는 수입으로 생활한다. 건강 부문도 42위로 중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특히 “내 인생이 의미 있다”는 문항에서 한국의 50대 이상 반응은 아시아 꼴찌였다. 또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한국 노인은 꼴찌였다.

이처럼 한국의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외면 받고, 가족으로부터는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고와 병고와 우울증의 늪에 빠져있다. 삼중고에 시달리는 한국 노인들은 매일 17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다. 한국의 노인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데도 정부의 복지정책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 때는 요란한 노인복지의 나팔을 울리지만 선거가 지나면 모르쇠로 일관한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헌신한 한국의 노인들이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몇 단계 아래인 필리핀이나 베트남보다 훨씬 못한 경제적·사회적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가. 인생 100세 시대에서 한국의 노인들은 미래의 설계가 아닌 당장의 삶이 시급하다.

100세 시대의 삶의 준비가 안 돼 있다

한국사회도 인생 100세 시대에 돌입했다. 미래사회의 허구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 인생 100세 시대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대한민국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생존자가 1만4,592명이라고 밝혔다. 1960~70년대는 100세 이상 생존자가 100명을 꼽기가 벅했는데 어느 새 1만명을 훨씬 넘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공기 좋은 시골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에 몰려있다. 서울 4,522명, 경기 2,639명, 부산 1,374명, 전남 896명 순이

다. 서울에선 은평구가 325명으로 최다.

30~40년 전 장수촌으로는 산 높고 물 맑은 농촌지역이었다. 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 무주·진안·장수와 남원, 전남 곡성과 구례, 경남 함안·산청 등 산골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인구 밀집지역이다. 공기도 안 좋고 소음도 많은데 왜 장수자가 대도시에 몰려있을까.

이유는 삶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게 나의 진단이다. 로빈슨 크루소 같은 ‘소외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딪치며 소통하는 ‘관계의 삶’으로 삶의 패러다임이 옮겨졌기 때문이라. 사회와 사람으로부터의 단절은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그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진전된다. 노인이 되어서도 문명과 접촉하면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 60%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적·정신적으로 100세 시대에 대비할 기본적인 여건이 결여되어 있다. 2060년이면 한국은 노인 인구가 47%를 점한다. 이제 정부나 기업이나 사회 전체가 노인문제 대책에 적극 대응할 때가 되었다. 노인 삶의 피해는 사회의 폭발적 요소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이, 가족, 체면으로부터 탈출하라

정부 대책 못지않게 노인 스스로도 권리를 지켜야 한다. 나이 든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이상을 잃을 때 늙는다. 프랑스 70대 언론인 콜레트 매니주는 ‘노인에찬’이란 책에서 “70이 넘어도 활기차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진짜 노인은 90에 시작된다”고 했다. “79세는 쉴 나이이다”라는 설 훈 국회의원의 말은 망발이다. 고대 로마 사상가 키케로는 “노년에는 스스로 싸우고 권력을 지켜라. 의지하지 말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자신을 통제하려 할 때만 존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학자 김열규는 유고작 ‘아흔 즈음’에서 “농익은 노년의 시간을 허송세월 한다면 자신을 내버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렇다. 늙을수록 자신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노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나이로부터 탈출, 가족으로부터 탈출, 체면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얼마 전 조선일보는 노년의 행복조건으로 관절, 인간관계, 할 일 세 가지를 꼽았다.

노인에겐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하다. 내일 만날 사람 오늘 만나고, 내일 먹을 것 오늘 먹어야 한다. 노인의 삶은 까르페 디엠(오늘을 즐겨라)이다. 노인이 되면 삶의 주체는 자식이나 체면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신이다. 별 볼 일 없이 살아온 하찮은 노인의 인생에도 반드시 둘도 없는 인생의 경험이 숨어있다. [ㄹ](#)



김 화

·본회 회우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국제단체 96개국 조사

한국 50위

소득 안정성은 89위

정부대책은 물론

노인 스스로도

권익 지켜야 할 때

치매 예방 9원칙 지키자

10월 건강 포럼서 강조 ... 올해 일정 끝내

10월 건강포럼이 11일 오후 2시부터 이윤수 비노기과에서 열렸다. 이날 연사는 이광영 회우(한국골든에이지포럼 상임감사)로 “만일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이란 제목으로 1시간에 걸쳐 강의했다.

이광영 강사는 “치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치매는 뇌세포가 점진적으로 파괴돼 기억은 물론 사고, 이해, 학습, 계산, 언어, 판단, 시간, 장소, 환경 따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없는 지남력장애(指南力障礙)로 시작해 전반적으로 인지기능 상실로 이어져 마지막에는 원시동물 수준까지 이르러 사망하는 비극적인 질환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무서운 치매를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강사가 제시한 치매예방방법은

1. 혈압, 혈당, 숙면 등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것
2. 하루 3km이상 걷기
3. 오메가3과 견과류 즐겨먹기
4. 사회 및 봉사활동 참여
5. 책읽기, 인터넷 정보검색
6. 취미생활로 스트레스 풀기
7. 긍정적 사고 갖기
8. 치아와 치주관리
9. 흡연과 과음은 금물. 단 매주 3회 적포도주 1~2잔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광영 연사는 나이든 사람의 피부에 최적화된 스킨로션 3종을 참석자들에게 선물했다. 올해 건강포럼은 11월의 전립선무료검진으로 대신하고 끝낸다. [ㄹ](#)

이보길 회원사업위원장

본회산악회 드림山 갑니다

대한언론인회산악회는 만추의 계절을 맞아 오는 18일(화) 의암호가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 보이는 춘천 드림산(해발 357m)에서 추계 산행 행사를 갖습니다. 아름다운 의암호의 풍경과 숲이 어우러진 드림산 산행에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산행일시: 2014년 11월 18일(화요일) 오전 8시
집합장소: 프레스센터 정문 앞(버스 출발)
회 비: 2만원
준 비 물: 추계등산장비 간식 식수
연락문의: 010-7276-6211(정운중 회장) 010-2691-0084(나용경 총무)

본회 기우회 연말 바둑 대회 개최

대한 언론인회 기우회(회장 정기정)는 오는 11월 28일(금) 오후 2시 종로 3가 바둑 세계기원에서 갑오년을 결산하는 연말 바둑 대회를 개최 합니다. 회원 여러분, 많이 참석 하셔서 그동안 갈고 닦은 바둑 실력을 맘껏 펼쳐주시고 또 한 해를 넘기는 송년의 아쉬움을 바둑으로 달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회는 A조(1~3급)와 B조(4급 이하)로 나눠 진행되며 시상은 각조 3위 까지 주어집니다. 동급일 경우 6호 반 공제. 회비는 없으며 대회 후 망년 회식이 있습니다. 연락처: 010-8765-3561(회장), 02-325-2025(기원)

▶ 인터넷 검색창에 **정치후원금** 을 쳐보세요
문의전화 : 02-523-6483

국민의
후원이 모여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듭니다

희망의 정치 원하세요? 후원하세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기부

- 후원회 후원금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모두 가능
-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가능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에서 기부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직접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공명선거 홍보대사
MBC 아나운서
김소영

정치후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기부시 초과액의
15%~25%를 세액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인생 2막

고명진 영월 미디어기자박물관장

·전 한국일보 사진부장

인터뷰 : 최명우 (본보 편집위원·문화평론가·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熱血 사진기자의 꿈 담은 박물관 운영

귀농 귀촌은 식자의 꿈이자 로망이다. 향수병 같기도 하다. 농촌 출신이 아니라 도회지 출신에 이런 향수병이 더 잘 걸린다. 특히 기자 출신들에게 마치 유행병 같이 귀향의 유혹이 스미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인생 전반전을 전투라도 치르듯이 치열하게 살아온 탓에 느긋하게 인생2막을 연출해보자는 의도야 아니 멋지라마는 과연 인생후반전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을 것이다.

녹수청산(綠水靑山)에 음풍영월(吟風咏月)을 누리려 영월오지로 귀농 귀향한 고명진 회우(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장·전 한국일보 사진부장)는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별을 보고 점을 칠 시간도, 영월 달을 농월(弄月)할 시간도 없다. 인생2막도 치열하기는 그 전막 못지않기 때문이다. 3,000평 넓은 대지의 한 쪽에 텃밭을 가꾸며 몸에 좋다는 채소라도 길러 보려했으나 씨를 뿌릴 시간이 없어 여기서 자라는 것은 잡초 뿐이다. 오히려 덩치 큰 제초기를 들고 위험한 풀깎이를 해야 할 판이다.

고 회우의 귀향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졌다. 영월의 폐교 하나를 구입해 멋진 자연사박물관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회우의 박물관은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서강로에 자리잡고 있다. 유명한 동강의 맞은편 서강쪽이다. 군의 다운타운과는 승용차로 약20분 정도 거리다.

텃밭 가꿀 시간도 모자라

고 회우가 이곳으로 귀농한지는 이제 2년쯤 된다. 그러나 그의 현직 타이틀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영월의료원 이사, 영월박물관협회 부회장, 중앙자살예방센터 미디어위원, 아시아기자협회 감사, 강원도 재능나눔봉사단 위원, 영월군농촌관광협의회 부회장 등 여러 가지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2막의 액세서리다. 1막에서의 타이틀을 보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신문학 석사,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 국민권익위원회 홍보위원, 사회통합위원회 홍보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실행위원 등. 그가 왜 평소 귀농을 꿈꿔 왔는지, 그리고 귀농 후에도 그가 왜 이리 바쁘지 알 만하다.

고 회우의 인생2막은 현재 입구 쪽에 가깝지만 그 내용의 비중으로 보아 출구는 감감하게 멀어 보인다.

일단 귀향은 성공적이다. 고 회우는 칸트의 '행복론'을 입에 달고 산다. 아주 바쁘고, 바빠서 행복하다는 것이다. 첫째 할 일이 있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희망이 있다면 더 무엇을 원하겠는가.

고 회우가 어려운 귀향의 길을 과감히 선택한 것도 이 세 가지 조건에 자신이 꼭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일이 있고, 있어도 아주 많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희망이야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수수께끼의 해답이듯이 도전적인 고 회우에게는 희망이



귀촌은 했지만 귀농은 못한 채 아직도 카메라를 손에 들고 박물관 운영에 심혈을 쏟고 있는 고명진 회우.

한국일보 명퇴 - 뉴시스 통신 그만두고 부인과 함께 버려진 폐교 박물관 맡아 재건 ... '희망농업대' 동료

그의 양 어깨에 단단히 걸려있다.

고교 때부터 기자의 꿈 키워

차차 스토리가 밝혀지겠지만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고 회우의 1막은 순애보의 장이며 2막은 약속의 장이다.

2012년 2월28일은 고 회우가 서울에서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2리로 주소지를 바꾼 날이다. 6·25 발발 다음 해 아버지가 피난갔던 부산에서 태어난 후 서울로 올라와 줄곧 서울에서만 살았던 그가 귀촌을 결정하고 강원도 오지로 부부가 함께 내려 온 것이다.

고 회우는 현역 때 열혈 기자로 용명을 떨쳤었다. 기자는 현장에 있어야 기록을 남긴다는 철칙에 따라 그는 늘 그때 그곳에 있는 기자로 뛰었다. 그는 일찍부터 기자의 꿈을 키웠다. 신일고 1학년 때 학교신문의 보도부차장이었다. 그의 중흥무진 활약으로 1학년이면 서도 차장자리를 꿰찰 정도였다. 이 때

이미 그의 진로는 결정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카메라다. 그는 고교 입학 기념으로 카메라를 선물 받았다. 물론 갖고 싶다고 때를 쓰긴 했어도 그의 품에 놀랍게도 당시의 고급카메라인 아사히 펜탁스가 안겨진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일생을 결정하는 키포인트였다. 이때부터 그는 카메라에 영혼이 팔린 사람 같았다. 그러기에 카메라들은 지금까지 그의 손을 떠나지 못한다. 아니 그가 카메라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카메라 때문에 귀향한 영월에서도 신문과 사진 등이 중심이 된 미디어기자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고 회우는 지금도 강의를 할 때는 중고교시절의 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교시절 미래의 꿈을 키워주신 은사의 얘기를 하면서 후진들에게 진로체험학습을 지도한다. 그는 현역시절 자신의 노후에는 대학강단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려면 학위가 필요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통장하



영월미디어기자 박물관 로고(위)와 전시장 내부

다시 된다

8

에 온 힘

나를 내놔다. 남편의 생각을 아는 부인이 그를 강단에 세우기 위해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한 것이다. 남편 몰래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가 돼 돈을 찾았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그 정성으로 2년간 시간을 쪼개 대학원에서 열공을 했고 마침내 학위를 땀으며 나중에 강단에 서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한국일보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사원들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이 무렵 고 회우의 부인이 병상에 누웠다. 대장암이었다고 한다. 고 회우의 정성스런 돌봄이 있었지만 2년간의 투병 끝에 부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야만 했다.

87년 보도사진집 출판

고 회우의 1막은 이렇게 아픔과 투혼의 계절로 점철돼 있다. 고 회우는 사진기자로서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보고 싶었다. 신문에 나가지 않은 사진, 나가지 못한 사진들을 집대성해 87년 보도사진집 ‘그날 그 거리’를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사진기자로서 자신에게도 매우 엄격했다. 사진기자는 자신의 기록이 중요하다면서 사진기자들이 취재하는 모습들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

어찌보면 ‘질 보다 양’으로 승부해보고 싶은 고 회우의 고집이 아니었나 싶다. 모태신앙의 독실한 기독교도이기도 한 고 회우에게 언젠가 한 교우로부터 만남의 요청이 들어왔다. 독신으로 사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는지 삶의 파트너 한 사람을 소개하겠다는 것이었다. 영월에서 제2의 인생설계를 꿈꾸게 한 현 미디어기자박물관 실장이며 부인 김영숙씨와의 인연이 맺어지는 시점이었다. 먼저 고 회우의 귀촌에 사랑이 작용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보지 않아도 알 만 할 것이다. 여기서 귀향 귀촌에 대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풀어보아야겠다. 전원에서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즉흥적으로’ 또는 ‘막연하게’ 귀농 귀촌을 결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농 귀촌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다. 귀농 귀촌의 첫 단추는 땅 구하기다. 또 직접 매입을 하든, 임차를 하든지 간에 입지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개별 땅보다는 지역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충고도 따른다.

경영논문 제출 심사바야

그렇다면 고 회우는 어떻게 이 대기 3천평의 폐교시설을 인수했을까. 돈은 몇 억이나 투자를 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 당초엔 여주나 단양 쪽에 좋은 곳을 구해 지인들과 함께 사랑방을 꾸며볼까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곳 영월의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 영월에 폐교를 이용한 박물관이 있는데 현재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었다. 알아보니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박물관은 군청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운영 아이디어가 우수하고 성실히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인정만 받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받게 되는 것이었다.

고 회우는 연구 끝에 장문의 경영논문을 영월군에 제출했다. 결국 심사단의 숙고 끝에 이 박물관은 고 회우에게 인수됐다. 형식상으로는 고 회우에게 고대하던 단감이 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그 운영은 참으로 고행의 길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희망과 열정이 있다는 것이 그의 힘을 북돋웠다. 고 회우의 귀촌은 농사를 짓기보다 그간 바쁘게 달려왔던 시간들을 되돌림 하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다. 기자생활의 공통점은 누구나 마감시간에 쫓겨가며 ‘빨리 빨리’를 생활신조로 삼고 살아간다는 점이다.

특히 사진기자들은 민첩과 발품이 특종을 낚는 기회와 정비례 한다는 선배들의 말을 하늘같이 믿고 현장에서 쉬 없이 달려왔다.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갖자고 귀촌을 설계해 본 것이었다. 처음에 부부는 잠시 텃밭을 이용한 밭농사를 지었다. 건강한 땅에서 건강한 먹거리가 나오고 건강한 먹거리를 식단에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낀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다.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㉓

앞아있는 시간 길수록 수명 짧아져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앞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각종 암에 걸릴 위험 뿐 아니라 불구가 될 위험마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어 관심을 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스포츠의학과 미국국립암연구소학술지 최신호.

영국스포츠의학지는 앞아 있는 시간이 짧으면 DNA를 짧게 유지하여 수명이 길어진다는 스웨덴 옉살라대학 공중보건 및 복지과학과 조르겐(Per Sjorgen) 교수 팀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조르겐 교수 팀은 주로 앞아 지내는 60대 후반 과체중인 49명을 대상으로 혈액을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채취하여 장수와 관련이 있는 DNA의 텔로미어(telomere)의 길이를 측정하여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미국국립암연구소학술지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차나 TV 앞 또는 컴퓨터 일을 위해 오랜 시간 앞아 지내는 사람의 경우 대장암과 자궁내막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 역학자 슈미드(Daniela Schmid) 박사 팀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슈미드 박사 팀은 앞아서 지내는 사람들의 암 발생률을 조사한 43편의 논문에 나타난 총 7만 명의 암 환자를 분석함으로써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또 미국심장협회지는 지난 6월호

에 TV시청 시간이 길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스페인 나바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팀(Miguel Martinez-Gonzalez)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나바라대학 팀은 건강한 성인 13,000명을 대상으로 TV 시청시간과 수명과의 관계를 조사, 이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 연구자는 사망자들과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TV시청, 컴퓨터작업 그리고 운전 등 하루 좌식생활(sedentary activities)을 한 시간을 서로 비교해 보았는데 컴퓨터작업과 운전 시간은 조기사망과 관련이 없었지만 TV시청과는 크게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체활동과 건강학술지는 지난 2월 고령자에서 운동 습관과 관계없이 앞아서 지내는 시간(sedentary life)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구가 될 위험이 높다는 노스웨스턴대학 페인버그의대 내과 둔롭(Dorothy Dunlop) 교수 팀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둔롭 교수 팀의 연구는 미국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0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운동습관과 일상적인 활동 능력을 평가한 결과이다. 여기서 불구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옷 입고 벗기 그리고 걷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했다. [4]

마을 사람들과 소통의 장

귀촌을 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영월군농업기술센터에서 내 불인 ‘영월희망농업대학’ 학생모집 현수막을 보고 입학을 결정 한 것이다. 영월로 내려온 지 한 달 만에 국비장학생으로 8개월간을 농촌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생각하지도 않은 학생장을 맡게 돼 함께 농촌대학생활을 하면서 44명의 학우이자 지금의 동료들(최고령 74세, 최연소 29세)을 얻는 대박이 터진 것이다. 지금 활동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소중한 동기들이다. 고 회우는 지금 다음카페 ‘뱃말 이야기’를 운영하면서 마을사람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이 ‘뱃말이야기’는 친근감이 가는 마을의 이야기로 눈길을 끌면서 재능봉사의 개념으로 알려져 KBS, SBS, MBC 방송국에서 현장 취재를 했다. 방송은 일약 이 박물관이 널리 알려지는데 큰 도움을 줬다.

영월 미디어기자박물관에는 지금 무슨 자료, 어떤 가치있는 것들이 소장돼 있을까. 겉보기로는 화려할 것이 없지만 여기엔 옛 기자들의 혼과 정신이 담긴 유물들로 가득하다. 손때 묻은 펜들

과 취재수첩, 막 갈겨 쓴 메모, 기자증, 역사적 현장을 담은 기록 사진 등 등 현장기자의 흔적들을 수집해 전시하고 있다.

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하다. 그 유한한 삶이 끝나는 날까지 가치 있는 삶을 지속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바람이기도 하다.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청년 같은 눈빛으로 다음 목표를 바라보고 가슴 설렘 줄 아는 고명진의 삶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그의 꿈은 쉽게 흉내 낼 수 없어도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만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자극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쓸쓸한 노년이 아닌 활력 넘치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고명진의 이런 신나는 꿈에 동참하고 싶지 않을까. 나이 들수록 더 반짝이는 삶, 인생의 내리막길을 오르막길로 돌려놓을 수 있는 비결을 엿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고명진 회우의 삶을 따라가 보면 서로 방향이 남다를 뿐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고뇌와 고독, 성취감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박물관
MUSEUM
72-1094



다. 열성이 지나쳐 현장취재는 안보내고 취재하는 기자들의 모습만 송고하느냐고 데스크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 자료들은 현 미디어기자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고 회우는 2004년 한국일보에서 명퇴하고 통신매체 뉴시스로 자리를 옮겼다. 나중에 서울경제사장을 역임했던 선배 김서웅 국장이 뉴시스를 인수하면서 그를 불렀기 때문이다. 뉴시스에서는 사진영상국장을 맡았다. 편집국과 사진영상국의 특이한 2원체제가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고명진 회우의 고집스런 발상에 의한 것이었다. 모든 기자는 ‘카메라를 보유하라’는 특명을 내리고 말 그대로 닥치는대로 현장을 포착하라고 지시했다.

연합통신을 이기는 길은 연합보다 ‘30분 먼저, 그리고 30분 더’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시간에 현장을 찍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치열한 전투 재연에 새로운 감회가 ...

6·25 춘천대첩 기념행사 본회 회우 대거 참석

대한언론인회 임원진을 비롯한 6·25 참전언론인회 회원 40여명은 지난 10월 18일 춘천 옛 캠프페이지에서 거행된 춘천지구전투 전승기념 행사를 참관했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육군 2군단이 주관해 열린 이날 '6·25전쟁 64주년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에는 장준규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고현수 2군단장, 최동용 춘천시장, 김진태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참전용사, 시민, 학생, 장병 등 많은 인파가 운집해 큰 성황을 이뤘다.

기념식에 이어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춘천지구전투 재연행사가 열려 당시 주력부대인 16포병대대 장병들에 의해 3일간 치열했던 당시 전투상황을 생생하게 재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투재연행사가 끝난 뒤에는 특공무술과 전통의장대 시범, 3군·여군통합 의장대 시범, 헬기축하비행, 블랙이글 에어쇼 등 축하행사가 있었다.

6·25참전언론인들은 행사가 끝난 뒤 2군단사령부 용비관에서 보훈처와 고현수 2군단장이 배운 오찬에 참석했다.

춘천사범 학생들도 참전

6·25 전쟁에서 춘천지구 전투는 북한군의 남침이 개시되자 춘천지역의 제7연대가 소양강 남안에 배치되어 도하준비중인 적을 격퇴하고 제7연대 1개대대의 심일중위 결사대는 남하하는 적의 U-75자주포를 근접 유인하여 파괴하는 등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고 따라서 적 2군단장은 6월 27일 12사단을 춘천방향으로 추가 투입, 집중적으



전승기념 행사장에 전시된 무기앞에서 기념촬영.



2군단 영내 '용비관'에서 고현수 2군단장과 함께.

로 공격해 왔으나 춘천시민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7연대의 57밀리대전차

포 및 포병 16대대의 105밀리곡사포지원 사격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분쇄함으

로써 춘천지역을 3일간 사수, 대승을 거둔 전투였다. 이처럼 북한군의 남하를 3일 간 지연시켜 국군의 한강-낙동강 방어선 구축과 UN군 참전을 가능케 했다. 북한군 2사단과 7사단의 공격을 막은 국군 최초의 승리 전투인 춘천대첩에는 당시 춘천중학교를 비롯 춘천사범학교, 춘천농업학교 학생 등이 학도병으로 참전하기도 했다.

6·25 전쟁당시 북한군의 1단계 계획은 북한군 1군단이 문산 포천방향으로 공격하여 서울을 점령하는 한편 2군단은 춘천을 점령하고 내친김에 홍천과 수원방향으로 공격, 국군의 주력부대를 격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춘천점령이 3일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이 계획이 좌절된 것이다.

따라서 춘천대첩은 첫째 북한군의 6·25전쟁계획에 결정적인 차질을 초래케 하고, 둘째 한강방어선형성과 UN군 참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케 하였으며, 셋째 체계적인 민·관·군 합동 총력체제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는 춘천지구전투(춘천대첩)와 낙동강지구전투, 인천상륙작전을 6·25 전쟁의 전세를 바꾼 3대 대승전투로 평가하고 해마다 전승행사를 재연하고있다. [4]

글:박기병 6·25 참전언론인회장
사진:이철영 편집위원

隨 想

긍정적 思考의 강력한 힘

의학에서 나오는 플라세보(placebo) 효과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내용은 의학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진짜라고 속여 환자에게 복용하게 해 이 환자의 병이 다 나았을 때 플라세보 효과라고 한다. 우리 인간이 가진 긍정의 힘이 작용하여 큰 효과를 나오게 한 것이다. 플라세보 효과의 반대말은 노세보(nocebo)효과이다. 환자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영향을 끼친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생각이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 실험을 통해 증명해준다.

60년대 후반 필자는 육군 사병으로 의무중대에서 약제를 담당하는 위생병으로 근무했다. 어느 추운 겨울 대대 병력이 3일간 야전 군사훈련에 들어가 위생병으로 이 훈련에 참가했다. 훈련 마지막 날 한 밤중에 한 병사가 응급환자를 업고 의무실에 찾아왔다. 이 환자는 40도가 넘는 고열로 신음을 하고 있었다. 당시 필자는 야외 훈련용으로 가지고 온 의약품들을 뒤져 해열제를 찾아보았으나 해열제는 모두 소비되어 한 알도 남지 않았다. 필자는 한마디로 당황했다. 군 후송병원으로 옮길 수도 없

어 하는 수 없이 필자는 해열제 대신 궁여지책으로 빨간색 비타민과 검정색 소화제 등으로 만든 가짜약을 즉흥적으로 특효약(?)으로 제조했다.

이 특효약을 환자에게 주면서 “이 약은 별을 단 장군급 이상만 먹는 비상용 특수약이다. 이 약을 먹으면 바로 고열이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내일 아침 일어나 바로 의무실에 와서 고열이 내렸는지 여부를 보고하라”며 돌려보냈다. 막상 환자에게 가짜약을 주고 나니 양심상 환자에게 미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이 환자는 다시 의무실에 찾아왔다. “충성! 어제 주신 특수 약을 먹고 고열



윤재홍

·본회 논설위원
·전 KBS제주총국장

이 내리고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필자는 깜짝 놀랐다. 믿어지지 않았다. 가짜약을 먹고 병세가 호전되는 바로 플라세보 효과라는 사실은 제대 후 뒤늦게 어느 의사를 통해 알았다.

유명한 소설가 이범선 작가의 단편소설 ‘고장난 문’에서는 이 플라세보 효과의 반대인 노세보 효과를 다뤘다. 화실의 문이 고장 나 하루 동안 간헐적으로 죽음을 맞은 화가 이야기이다. 화실에 갇힌 이 화가는 화실에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질식사를 당했다는 내용이 주요 줄거리이다. 이 소설에서 경찰은 화가의 사인이 분명히 질식사인데 죽은 화가가 갇힌

화실은 사방으로 창문이 열려있어 공기가 부족할 이유가 없는데도 질식사된 것을 의심했다. 결국 경찰은 최종적으로 이 화가의 죽음은 비정상적인 절망과 공포라는 치명적인 부정적 생각 때문에 질식사 한 것으로 사인을 밝혀냈다.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도 이겨내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닉 부이치치’ 씨가 생각한다.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에 걸려 태어 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서핑을 하고 드럼도 연주하는 ‘닉 부이치치’ 씨는 바로 긍정적인 마음과 의지로 절망을 극복한 플라세보 효과를 실천해 성공한 인물이다. 유명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단정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절망에 빠질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의 강력한 힘이 있다. 바로 그 열쇠는 플라세보 효과를 일으키는 묘약 ‘긍정의 힘’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과 절망도 이겨 낼 수 있다. 바로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의 강력한 힘을 발휘 한다면 현재의 우리 삶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4]

보은 솔향기 - 단풍에 취했다

본회 가을철 문화탐방

대한언론인회 회원 80여명은 지난 10월 22일 가을철 문화탐방 행사로 충북 보은지역을 찾았다. 비바람 몰아쳤던 전날 날씨와는 달리 하루 종일 날씨가 좋았고 먹거리도 그런대로 입을 즐겁게 한 나들이였다는 생각이 든다.

보은 하면 속리산 법주사로 유명하지만 찾고 보니 신라시대 축성한 삼년산성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다 소나무만을 주제로 한 전시관에선 그윽한 솔향기가 진동해 색다른 감회를 느끼게 한 하루였다.

왕건도 못 뺀 신라 삼년산성

보은 인터체인지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우뚝 솟은 삼년산성, 신라시대에 축조되었고, '삼국사기'에 축성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완성하여 삼년산성이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발 325미터의 오성산에 평범한 돌로 가로 세로로 층층이 쌓은 대표적인 석축 산성의 하나로 성의 둘레가 약 1,680m, 폭은 중국 만리장성의 서너 배는 된다는 게 해설사의 설명이다. 삼국 통일 전쟁 때 태종 무열왕이 당나라 사신 왕문도를 접견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고려 태조 왕건은 이 성을 점령하려다가 크게 패했다는 전설적으로 요충지이고 아주 튼튼한 산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이어서 찾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격전지중 하나인 보은군 성곡리 일원에 조성된 공원이다. 상징탑, 돌성, 민중의 광장, 하늘길 계단 등을 설치하여 동학운동의 이념과 역사적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형 생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국의 수만 동학교도들이 괴나리 봇짐을 메고 지금의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당시의 장안에 모여 일본과 외세를 배척하고 의병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여 조성된 공원이다. 우리 회원들이 해설사의 선창으로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를 합창하기도 했다.

법주사는 너무나 잘 알려진 고찰로



신라 삼년산성에서.



법주사 경내에서.



솔향원에서.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법주사 정문에서 대웅보전까지 걸어서 약 10여분, 길가엔 울긋 불긋 단풍나무가 반기고 계곡으로 흐르는 해맑은 물이 소리 치며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법주사 청동대불에 압도

법주사의 개조(開祖)로 알려진 의신(義信)이 일찍이 불법을 구하러 천축(天竺·인도)으로 건너가 그 곳에서 경전(經典)을 얻어 귀국해 나귀에 싣고 속리산으로 들어가 서기553년(신라 진

흥왕 14) 이 절을 창건했다니 지금부터 1461년 전의 일이다. '법(法)이 안주할 수 있는 탈속(脫俗)의 절'이라 하여 법주사라는 명칭이 붙어졌다는 기록이 또 한 경이롭다.

높이 8m의 기단 위에 25m 높이로 우뚝 선 미륵대불, 법주사의 상징물인 이 대불에 소요된 청동의 무게는 무려 160톤에 달하고 점안식 날 하늘에서는 서광이 비추고 머리 위에서는 백호광명(白毫光明)이 치솟아 모든 대중이 환희와 감탄에 젖었다고 한다. 최근 청동위에 금칠을해 더욱 웅장하고 찬란하게 보이는 청동대불 앞에선 저마다 추억만들기에 바쁜 관광객들로 붐빈다.

소나무 주제 솔향공원

보은의 솔향공원에 들어서면 우리생활에 미치는 소나무 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소나무 하면 대체로 굳은 절개를 상징한다. 윤선도의 오우가 중한 구절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지거늘/ 솔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구천의 뿌리 곧은 줄을 글로하여 아노라.”가 그렇고 성삼문의 단심가에 나오는 '낙락장송'도 굳은 절개를 읊은 것이다. 그냥 지나쳤다면 후회할 뻔했다.

보은은 요즘 대추축제가 한창이다. 해설사마다 주먹만 한 대추도 달린다며 대추의 고장 보은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홍보한다. 자연산 버섯정식오찬도 입맛을 돋우었지만 귀로에 들른 천안의 묵은지 찌개와 고등어 구이 만찬도 일품. 서울에 도착해 시계를 보니 오후 8시 30분,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한 치의 오차도 없지 않은가. 이날 좋은 날씨를 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하루를 건강하게 함께 해준 회우 여러분께 감사할 따름이다. ☞

글: 정운중 상임이사

사진: 이철영 편집위원

白川 趙昌化고문 서문전 대성황

본회 회우 100여명등 300여명 참석 개막



조창화 고문의 작품 “冊”.



장미 한송이의 축하, 오른쪽부터 신우식 본회고문, 조고문의 부인 김혜순여사, 조고문, 김은구 회장, 제재형 고문.

배천(白川) 조창화 고문의 서문전이 10월16일 인사동 백악관 미술관에서 열려 22일까지 계속되었다.

미술관 4면 벽면에 가득 전시된 작품들은 조창화 고문이 10여년을 익힌 솜씨로 갑골문자, 광개토대왕서체, 한간체, 초서등 다양한 서체의 40여점으로 관객들을 놀라게했다. 특히 전시장 한 벽면을 채운 거대작품은 송나라 시인이자 문장가, 서예가인 황庭堅(山谷)이 춘추전국시대의 이야

기를 초서로 쓴 1600자였다. 이작품은 큰 화선지 15장을 가득 메운 가로10m 세로2m의 대작이었다. 전시회 첫날 개막식에는 대한언론인회 신우식, 제재형 고문과 흥원기 명예회장, 김은구 회장 등 많은 회우들과 지난날 함께 일했던 KBS동료들, 그리고 서예가, 정관계 인사등 3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대한언론인회는 조고문의 “화환등절대사절”을 감안, 장미 한송이로 축하했다. 조창화 고문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책자를 전시회에 온 사람들에게 선물했다. ☞

비타민 정보는 누구나 조금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나 더 알고자한다면 얼 민텔(Earl Mindell)의 ‘비타민 바이블(Vitamin bible)’ 한 권이면 족하다. ‘비타민 바이블’의 첫 장에는 『The first wealth is health. (첫째가는 재산은 건강이다)』라고 적혀있다. 더 보탬 것이 없다.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영양보조식품인 서플먼트(Supplement)와 서로 넘나드는 부분이 많다. 가령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필수 미네랄을 보면 섭취 권고량이 확정되어 있는 미네랄은 7가지이다. 칼슘 옥소(沃素), 철, 마그네슘, 인, 셀렌, 아연(亞鉛)이며 이들 중 서플먼트(영양보조식품)로 내가 일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것은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네 가지나 된다. 약 18가지의 미네랄이 신체기능 유지와 조절에 불가결임이 알려져 있으나 미국정부가 정한 1일 섭취권고량(RDA)은 그 가운데 앞에 든 7가지에 한정되어 있다.

우선 비타민에 관한 사실을 살펴보자.

▲ 한 개비의 담배는 25~100 밀리그램의 비타민 C를 파괴한다.

▲ 합성 비타민 D가 첨가되어 있는 시중의 우유는 인체로부터 마그네슘을 뺀다.

▲ 스모그가 많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만큼 비타민 D를 만들 수 없다. 스모그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이다.

▲ 고령자의 대부분은 식사로부터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는데다 햇빛을 쬐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서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지 못한다.

▲ 매일 ‘각테일 한잔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몸속의 비타민 B1, B6, 엽산(葉酸)을 격감시키고 있다.

▲ 1천만명의 미국여성이 피임용비를 복용하는데 대부분의 여성은 피임용 빌이 비타민 B6, B12, 엽산, 비타민 C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을 모른다.

▲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암연구자들은 비타민 C와 E, 그리고 양배추 등의 평지과(겨자과의 월년초·越年草)에 들어 있는 ‘인돌’류(類)로 불리는 화학물질이 어떤 종류의 발암물질에 대해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억제제로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며 있다.

▲ 비타민 B1은 뱃멀미나 비행기 멀미를 예방한다.

▲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비타민 B6의 섭취량을 늘려야 된다.

▲ 양파, 마늘, 파 등은 ‘아리산’이라는 자연의 항생물질을 품고 있어 유익균(有益菌)을 죽이는 일 없이 병원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

▲ 아스피린은 몸에서 비타민 C의 배설을 3배나 가속시킨다.

▲ 인공향미료, 착색료(着色料), 합성조미료, 그밖의 첨가물이 든 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은 몸의 면역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진다.(*식품 첨가물 중에는 암을 일으키는 것도 있으므로 먹어서는 안될 식품첨가물이야기를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13>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서플먼트(上)

따로 한번 쓰겠다.
필자 주)

▲ 땅콩을 날로 먹으면 그 속에는 단백질의 소화를 어렵게 하는 효소가 들어있다.

▲ 마가린의 주성분(식용유를 굳게 하는)은 포화지방산 이상으로 건강에 나쁘다.

▲ 블루베리, 블랙베리, 붉은 양배추는 날것보다 가열 조리한 것이 건강에 좋다.

▲ 양파, 붉은 양파, 붉은 포도, 브로콜리에는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한데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소의 연구로는 케르세틴 성분은 항암물질이며 종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어지는 에스트로겐 요법의 효과를 높인다. 에스트로겐을 피 속에 많게하는 작용을 한다.

▲ 블랙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식도암의 리스크를 줄인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발암물질이라는 혐의가 있으나 우유의 단백질은 탄닌을 중화시켜 몸이 흡수할 수 없도록 한다.

▲ 당근은 동맥벽에 무늬(斑)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동맥경화에 의한 심장발작을 예방한다. 하루에 큰 당근 한 뿌리를 먹으면 ‘베타 카로틴(beta-carotene)’에 의한 비타민 A

‘비타민 바이블’의 건강상식 알아두자

양을 만들기 전에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한다고 한다.

▲ 일가불포화지방산(一價不飽和脂肪酸)을 넉넉하게 포함하고 있는 올리브 기름은 심장병과 싸우는 가장 좋은 자연식품의 일종이다.

▲ 지나친 염분을 몸속에서 씻어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하루에 6~8잔의 물을 마시는 일이다.

▲ 짜는 치약(練齒藥)에 들어있는 연마제(결정체)와 거품을 만들어내는 물질 그리고 다른 첨가제 탓으로 궤양성의 대장염, 크론병, 감응성대장증후군 사이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를 닦은 다음 입을 여러번 헹구어 치약의 잔여분이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속에 폴립이 생긴다는 설이 있고 얼마 전 TV에서 유해 치약이 상당히 많다는 뉴스를 본 일이 있다. 이 대목은 비타민 정보가 아닌데도 비타민 바이블에 들어 있다. (필자 주)”

▲ 미국 암학회는 껌이 평균 수명을 7년 이상 떨어뜨린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껌연자와 비껌연자의 평균 수명의 차이는 18년임을 밝힌적이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지 않음으로써 수명이 11년이나 길어지는 셈이다.

▲ 보론이라는 미네랄은 사과, 포도, 포도주스에 많은 성분인데 폐경후의 여성의 뼈 감소를 늦춘다. 또 보론은 뼈 감소를 늦출 목적으로 이루

약 11,000 IU 섭취가 가능하다. “베타 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前驅)물질이다. 섭취하면 몸 속에서 비타민 A로 변하나 동일물질은 아니다.(필자 주)”

▲ 네덜란드에서 4년동안에 걸쳐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반개의 양파를 섭취함으로써 위암의 리스크가 50% 줄어든다. 양파 속에 들어있는 유화(硫化)아릴은 항암물질이며 발암물질을 무독화하는 효소의 활성을 높인다. “또 양파는 당뇨병을 개선하는 최선의 식품으로 알려져있다. 나의 경우 당뇨병을 고친 경험칙으로서 증언할 수 있다.(필자 주)”

▲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Lycopene)은 항산화(抗酸化)물질이다. 1주일에 토마토 소스를 2~4번 먹는 남성은 전립선암 리스크가 훨씬 떨어진다.

▲ 비타민 E를 영양보조 식품으로 섭취하면 심장병 리스크가 줄어든다.

▲ 1주일에 견과류(堅果類)를 5회 이상 먹는 베지터리언(채식주의자)은 주 1회 이하 먹는 사람에 비해 심장병의 리스크가 낮다. “(심장관막증을 거의 정상상태로 개선한 나의 식습관에는 잣과 호두등 견과류가 매일 들어있다. 필자 주)”

▲ 미국 태프트 대학에 있는 미국 농무성인간영양연구센터가 장기간에 걸쳐 행한 노화 연구에 의하면 매일 섭취하는 비타민 C의 영양보조식품의

섭취가 백내장 발증 리스크를 떨어뜨린다.

▲ 붉은색 계통의 포도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악성 콜레스테롤(LDL)의 산화를 비타민 E의 1,000배를 넘는 힘으로 방지한다.

▲ 콩에서 추출한 인지질(분자안에 인산이 들어있는 복합지질)의 레시틴을 서플먼트로 하루에 100mg을 섭취하는 사람은 정상적 노화에 의한 기억력의 저하를 12년치 역전시켜 뇌의 파워를 높인다.

▲ 항산화 물질인 아세틸시스틴(NAC)은 비타민보다도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일 때가 있다.

▲ 마그네슘은 근육을 릴렉스 시키는 물질로서 칼슘채널 차단제와 같은 작용을 한다.

비타민 문답

▲ 비타민 A - 비타민 A는 지용성(脂溶性)이라서 소화관으로부터 적절히 흡수되기 위해서 미네랄과 지방이 필요하다. 체내에 저장해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보급할 필요는 없다.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성인남자는 매일 1,000 RE(5,000 IU)의 비타민 A의 섭취가 필요하다. 여성은 800 RE(4,000 IU). 비타민A는 베타 카로틴으로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미 비타민 A로 존재하는 동물성 식품의 비타민 A는 과잉섭취 했을 때 독성을 지닐 때가 있으나 베타 카로틴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베타 카로틴은 어떤 종류의 암을 예방하고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내리게 한다. 감염과 싸우는 T세포의 수를 늘려서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병의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인자(因子)이기도 하다. 또 호흡계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부여하고 튼튼한 뼈, 건강한 피부, 머리칼, 이빨, 잇몸을 만든다. 비타민 A가 모자라면 안구건조증, 야맹증을 일으킨다. 생선의 간유, 당근, 짙은 녹색야채, 달걀, 우유, 유제품등에 넉넉하다.

▲ 비타민 B1(치아민) - 수용성(水溶性)이다. 모든 비타민 B무리(群)와 마찬가지로 여분으로 섭취된 것은 몸속에 저장되지 않고 배설되므로 매일 섭취할 필요가 있다. 계량 단위는 mg, 비타민 B무리는 서로 돕는 작용이 있으므로 따로따로 섭취했을 때보다도 한꺼번에 섭취했을 때 효과가 크다. 비타민 B1, B2, B6은 같은 양(각각 50mg씩)을 섭취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비타민 B1은 ‘정신적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다. 까닭은 비타민 B1이 신경계와 정신상태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벼운 이뇨(利尿)작용이 있다. 정신상태를 개선하고 신경계, 근육, 심장기능을 정상으로 유지시킨다. 맥주효모, 쌀겨, 콩, 달걀노른자, 생선,オート밀, 땅콩, 돼지고기, 거의 모든 야채, 우유에 많이 들어있다. 보통 서플먼트로서는 50mg, 100mg 짜리가 있으나 비타민 B2, B6과 동량(同量)이 들어있는 비타민 B 콤플렉스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㉔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의 안전이 완성됩니다



모든 안전에는 원칙과 수칙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전이 곧 도민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으로
1,250만 도민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걱정 없는 행복한 경기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굿모닝! 경기도

溫故知新

을지문덕 墓와 후손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나라 군사들이 더욱 지치도록 하루에 일곱 번 싸워 일곱 번 모두 일부러 저춤으로써 적군을 고구려 영토 깊숙이 유인했다. 수군은 살수를 건너 평양성에서 3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다다랐다.

을지문덕이 다시 사자를 적진에 보내 이런 말로 거짓으로 항복을 청했다. “만약 군사를 돌이킨다면 반드시 우리 대왕을 모시고 가서

황제에게 항복하리다.”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들을 조롱하는 저 유명한 오언시를 지어 보낸 것도 바로 이때였다. <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그 시의 내용은 이렇다.

-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 기묘한 방략은 지리를 통달했도다. / 싸워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 족함을 알고 돌아감이 어떠리. - (神策究天文 / 妙算窮地理 / 戰勝功既高 / 知足願云止)

그제야 을지문덕에게 속은 것을 알아차린 우문술 등은 서둘러 퇴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곳곳에 매복해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고구려 군이 사방에서 이들 지친 수나라 군사들을 사정없이 추격하며 맹렬히 공격했다. 수군이 결정적 타격을 입은 것은 살수에서였다. 여기에서 우둔위장군 신세웅(辛世雄)이 전사하는 등 수군은 참패했다. 그렇게 해서 압록강을 살아서 건너간 자는 30만 5천 명 가운데 2천 700명 뿐이었다. 이것이 유명한 살수대첩의 전말이다.

그러다가 617년에 마침내 양제가 친위군의 쿠데타로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양제를 죽인 사람은 그의 평생

을지문덕이 오거돈 반드시 사로잡으라”는 밀명을 받고 왔기에 을지문덕이 제 발로 걸어서 찾아오자 이게 웬 떡이냐면서 속으로 기뻐하며 을지문덕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상서우승 유사룡(劉士龍)이 항복하겠다고 제발로 찾아온 적장을 생포한다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고, 또 대국의 체면도 말이 아니라면서 반대했다. 우중문은 할 수 없이 을지문덕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을지문덕을 그대로 돌려보낸 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듯했다. 나중에 황제가 이 일을 알면 내 목이 달아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곧 을지문덕에게 사람을 보내, “꼭 할 말이 더 있으니 빨리 돌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범의 아가리에서 벗어난 을지문덕이 그런 잔꾀에 넘어갈 리가 만무여서 돌아보지도 않고 압록강을 건너가 버렸다. 우문술은 퇴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중문과 의논하니 우중문이 펄쩍 뛰며 반대했다.

“장군은 수십 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하찮은 적군을 쳐부수지 못 했으니 장차 무슨 낮으로 황제 폐하를 뵈겠소 이까?”

우중문이 황제까지 들먹이며 나서자 우문술도 할 수 없이 그의 주장에 따라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을지문덕의 뒤를 쫓았다. 을지문덕이 고구려의 대신으로서, 또 적의 침략군과 맞선 최고사령관의 신분이면서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간 용기와 희생정신이야 말로 민족적 영웅의 품모라 하겠다. 을지문덕은 수

수나라 백만 대군을 물리친 고구려의 을지문덕(乙支文德)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李舜臣)과 더불어 가장 존경하는 민족적 영웅이다. 그러나 이순신에 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지만, 을지문덕은 기록이 매우 빈약하다. 을지문덕이 수나라 대군을 전멸시킨 살수대첩(薩水大捷)의 주역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아도 그의 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태어나 어떤 벼슬을 지냈으며, 언제 어디에서 죽었고,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을지문덕은 평원왕이나 양원왕 재위시에 평양 근처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평양에서 가까운 평남 증산군·평원군 지방에 을지문덕에 관한 전설이 서려 있다. 그가 태어났다는 마을의 석다산은 현재 평남 증산군 석다리에 있다. 석다리에는 을지문덕이 어린 시절을 읽고 무술 훈련을 했다는 전설이 있다. 또 평남 평원군 화진리 불곡산 동굴 속에서 글 읽고, 석다산 남쪽의 마이산으로 말을 타고 다니며 무술 훈련을 했다는 전설도 있다.

수 양제(隋 煬帝)는 612년 정월에 고구려원정에 나섰다. <수서(隋書)>는 이때 양제가 동원한 군사가 24군에 113만 3천 800명이라고 한다. 군량 등 물자 수송에는 그 2배의 인원이 동원되었다고 하니 이는 거의 300만에 이르는, 중국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군이였다. 6월이 될 때까지 요동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 하자 양제는 자신이 직접 요동성으로 달려와 독전을 했으나 그래도 성은 요지부동이였다. 초조해진 양제는 신임하는 장수인 우문술(宇文述)과 우중문(于仲文)에게 30만 5천 명의 정예군을 주고 평양성을 직접 공격토록 명령했다. 우문술과 우중문은 요동성을 우회하여 압록강에 이르렀다. 고구려의 대신 을지문덕이 우문술과 우중문의 수나라 본영에 나타난 것이 그 무렵이였다.

을지문덕은 적진으로 찾아들어가 우문술과 우중문 등에게 항복하겠노라는 뜻을 전했다. 사실은 항복이란 거짓이고, 항복한다는 핑계로 적군의 허실을 탐지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우중문은 출전에 앞서 양제로부터 “고구려왕이나

동지였던 우문술의 아들 우문화급(宇文化及)이었다. 수양제의 피살로 수나라는 중국을 재통일한 지 불과 40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그 이듬해에 이연(李淵)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당나라이다.

살수대첩 이후 을지문덕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을지문덕의 자취가 그 뒤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가 을지문덕 장군 일대기를 쓰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35년에 을지문덕 묘를 답사한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10월 1일, 2일, 3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김준연(金俊淵)의 답사기이다. 그 글에 따르면 을지문덕의 묘는 평남 강서군 잉자면 2리 현암산 동쪽 기슭에 있으며, 을지문덕의 후손 돈종각(頓宗珪) 씨도 만났다고 한다.

평남 대동군 대보면 태평외리에 살고 있던 돈씨는 자신의 조상 을지문덕의 묘가 평북 의주에 있다는 말을 듣고 평북 의주군 옥상면 자물촌 싸리골에 찾아가 보니 그 묘는 을지문덕의 조상 을파소(乙巴素)의 묘였다고 한다. 거기에는 을파소의 조부 을두지(乙豆智)의 묘도 있었다고 한다. 을지문덕의 후손이 어찌하여 돈씨가 되었는가. 고려 인종 때 묘청(妙淸)의 봉기가 있을 때 이 고을에 살던 을지문덕의 15세손 을지수(乙支遂)·을지달(乙支達)·을지원(乙支遠) 3형제가 의병을 일으켜 관군을 도왔고, 그 공로로 인근 돈산(頓山)에 봉해졌으며, 돈씨를 사성(賜姓)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을씨가 을지씨로, 다시 돈씨로 변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한편 1938년 5월 24일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조만식·최윤옥·김병연·김성업 씨 등 평양의 지식인들이 평남 강서군 잉자면 현암산에 있는 을지문덕 장군 묘의 보수 모임을 조직했다’는 내용이다. 평남 강서군은 현재 남포시에 편입되어 있고, 이에 관한 기록을 더는 찾을 수 없어 매우 아쉽다.

평양 근교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단군릉을 조성한 북한정권이 을지문덕 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하다. [4]

김성환 회우 ‘고바우 특별전’ 11월 30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성환(82) 원로 회우의 ‘고바우영감’이 바라본 우리 현대사 특별전이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김왕식)에서 10월 7일 개막,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한 올 빼죽 솟은 머리칼에 검은 테 안경, 볼품없는 콧수염을 기른 ‘고바우영감’ 특별전에는 우리 현대사의 주요 정치·사회적 사건과 문화 현상을 해학과 풍자, 익살로 흥미로운 김 화백의 시사만화 7,700여 점 가운데 엄선한 작품 2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1950년 2월 1일 육군본부 ‘사병만화’에 첫 선을 보인 이래, 동아·조선을 거쳐 문화일보의 최종회 ‘춘풍추우’(2000년 9월 29일)까지 50년 동안 1만 4,139회에 걸쳐 정치 사회적 이슈를 적나라하게 담아냈던 4컷짜리 시사만화 ‘고바우영감’은 한국 근현대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기도 하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양아들의 ‘가짜 이강석 사건’을 빚낸 ‘경무대 똥지게’(1958년 1월 23일자), 신군사정부 계엄사령부의 언



고바우 캐릭터(위)와 작품설명을 하는 김성환 회우(아래).

론탄압 검열 과정에서 게재불가 통보를 당했던 ‘12·12 군사반란’(1979년 12월 26일) 및 ‘언론 통제법’(1980년 11월 17일) 등의 원화 54점을 비롯해 ‘남북공동성명’, ‘6·29 선언’ 등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리한 비판적 시각으로 펼쳐며 민의를 대변한 시대적 명물들을 생생한 모습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다. 김성환 원로 회우는 “6·25 당시 피난처에서 50여일 동안 200여 인물을 구상한 가운데서 나온 캐릭터가 ‘고바우영감’이다. 당시 50대로 설정했는데 반세기가 지나도록 50세 그 나이로 살아온 것은 국민들의 사랑과 격려 덕이다. 한 때 개를 주인 공으로 삼고, 가만히 앉아 있는 묵언(默言)의 고바우영감을 그려도 문제를 삼는 등 온갖 풍파를 수 없이 겪었다.”며 회상에 잠겼다.

‘고바우영감’은 현대사 연구의 학술·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538호(2013년 2월)로 지정되었다. [4]

글·유한준 편집위원
사진제공·대한민국역사박물관

www.kosep.co.kr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Small Giant's가 될때까지

남동발전이 함께 하겠습니다

21C 글로벌파워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남동발전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동반성장 지원프로그램

| 경영혁신 | 발전설비 중핵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인증취득 지원사업, 기술보안 및 정보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성과공유제,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해외규격 인증 취득지원사업, 산업재산권, 신기술인증 지원사업, 벤처기업인증 취득지원사업, 품질, 안전, 보건,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 판로개척 | 수출전문회사 G-TOPS 운영 지원사업, 코트라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 시장개척단 수출로드쇼, 기술개발제품 순회설명회,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제품홍보 영상, Catalogue 제작 지원사업

| 연구개발 | 이업중중소기업협의회 지원, 연구개발제품 실증화지원사업, 연구개발 기획지원사업,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 현장기술연구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발전소 불용품 지원사업, 현장협력 연구 및 실증센터 운영,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관 운영

| 인력양성/채용지원 | 산학협력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사업, 발전정비인력양성사업, 국가인적자원 육성 지원사업, 공군, 해군전역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인력양성 교육,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중소기업 전담 서포터즈 지정 지원사업

隨 想

선비, 신사, 그리고 사무라이

요즘 우리 사회는 ‘명백한 사실’조차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평가가 다른 이른바 가치의 혼란시대에 처해 있다.

특정인이 속한 집단의 논리와 정치적 해석 그리고 이념의 색깔까지 덧칠이 되어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중구난방(衆口難防)의 형국이다.

이런 왜곡된 여론 조성을 우리사회의 지식

인 특히 일부 언론인들이 주도 하는 듯해서 개탄스럽기만 하다. 우리 지식인들에게는 선비정신이라는 아름다운 정신문화가 있다. 선조들이 물려준 자랑스런 유산이다. 선비정신은 조선시대를 꿰뚫는 차원 높은 정신이다. 선비정신은 한마디로 말해 ‘종교적이라고 할 정도로 진실함을 추구’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할 말은 하고야 마는 서릿발 같은 기개’ 그리고 ‘일관된 지조’를 생활신조로 하는 고품격 인격과 지성에서 나온다. 선비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 ‘사실(事實)’ 왜곡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을 쥐임금의 잘못을 직간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으나 중단하지 않았고 사초(史草)를 만들고 실록을 작성한 사관(史官)들이 사초와 작성한 선대(先代)아버지의 실록을 아들인 당대 임금의 열람을 거부한 역사를 보면서 선비들의 기백을 피부로 느낀다. 이들은 ‘옳음(正)’을 지키고 ‘그름(邪)’에 타협하지 않았다.

선비정신의 연원을 구태어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성리학의 기본철학이다. 선비들은 학문적 지식의 축적도 중요하게 생각 했지만 인격적 완성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때문에 선비들은 ‘의리’와 ‘명분’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의리를 모르는 사람은 금수(禽獸)로 취급되었고 명분에 어긋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대부(士大夫) 사회에 머물 수 없었다. 오늘날 일부 지식인들이 의리와 명분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자신과 종파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곡학아세(曲學阿世)의 세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말로 걱정스럽다.

서구의 신사도는 기사도가 그 뿌리이다. 신사도의 중요한 덕목은 고품격(高品格) 인성이다. 기사도는 1485년 ‘멜러리경(Sir Thomas Malory)’이 쓴 ‘아더왕의 죽음(The morte D'arthur)’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6세기 전설의 영국 왕 아더는 72명의 원탁의 기사들에게 ‘명예(honor)’를 강조하면서 ▲극악한 행위나 살인을 하지 않는다. ▲반역을 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 가혹하게 하지 않는다.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사랑이나 재산 때문에 전투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이병대

·본회 회우
·전 KBS스포츠국장

받는다.

이러한 덕목은 이후 서양인의 정신적 유산이 되어 신사도의 기본 철학이 됐다. 영국의 신사사회는 귀족이 아닌 지주(gentry)사회의 독특한 문화에서 출발한다. 신사도는 맹자가 언급한 ‘항산(恒産)이면 항심(恒心)’이라는 동양의 보편적 상식과 맥을 같이하는 품위있는 배려의 기풍이다.

신사문화의 핵심가치는 명예이다. 명예는 정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빛난다. 신사사회에서 명예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었고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비굴(servility)한 행동은 용서 받지 못했다.

특정집단의 이해에 따라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상상 할수도 없었다.

특히 신사는 거짓말을 가장 혐오했다. 신사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 신사사회에서 종종 벌어지는 포커게임의 빚도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신사 사회의 불문율이었다. 신사도의 여러 얘기들은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등 19세기 영국소설에서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다. 특히 신사는 이익을 쫓지 않고 정의를 따랐다.

‘I will give you my word.(내 말을 건다)’라는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면 이 말에 책임을 지고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신사의 매너 였다. 이 같은 내용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는 비극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고 현재 미국 10달러 초상화 인물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재무상으로 있을 때 당시 부통령과 사소한 언쟁 끝에 결투로 이어져 목숨을 잃었다.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Pushkin)도 아내의 정부와 결투 끝에 총상을 입고 가료 중 숨진다. 모두 조금만 참으면 될 수 있는 일을 비굴하지 않게 명예를 지키려고 목숨을 버린 것이다. 신사정신이 바탕인 서양 언론의 경우 ‘사실’ 보도가 모든 뉴스 보도의 금과옥조(金科玉條)이다. 흑(黑)과 백(白)이 뒤바뀌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일본의 사무라이(侍)정신은 어떤가. 임진란 발발 2년 전 황윤길을 정사로 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다 돌아왔다. 조선왕 선조는 이들로부터 히데요시가 ‘시문(詩文)은 고사하고 한문조차 모른다.’는 보고를 듣고 ‘히데요시가 정말 사람인가’하고 물었다고 한다. 옛날 사무라이에게 학문은 의미가 없었고 주군과 자신의 관계도 이해에 따른 계약관계 였다. 목숨을 걸고 주군에 충성하면 은혜의 대가로 자신에게 토지를 줬다. 사무라이들은 공로로 땅을 얻기

신상현 원로회우 별세

신상현 원로회우가 10월 1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17일 발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33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에서 출생, 고려대 영문학부를 졸업하고 57년 서울신문학원을 수료한 뒤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몸담았다.



서울신문에서 동아방송으로 옮겨서는 방송뉴스부차장, 부장, 사회문화부장, 주일특과원을 역임했다. 그후 KBS 보도담당 방송위원 방송심의위원,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을 역임했고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취재차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다. [국문]

신상현 형 영전에

신우식(본회 고문)

몸이 불편하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비보입니까. 이제 여든을 넘기셨으니 이 100세 시대에 너무나 슬프습니다.

우리는 1957년 서울신문 입사동기생입니다. 신형과 최서영사장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는 20대 초반에 서울신문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영문학부를 졸업한 신형은 신문기자의 뜻이 있어 서울신문학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신형은 1963년 동아방송으로 옮겨 방송뉴스부차장, 방송뉴스부장 그리고 주일특과원을 역임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번째 도쿄 하늘아래에서 만나게 됩니다. 동아방송 주일특과원으로 온 신형과는 ‘전우’로서 함께 뛰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신형과 관련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돌이키고자합니다.

1978년 8월 당시의 소련 땅 레닌그라드에서 열린 세계배구선수권대회에 우리 여자배구선수단이 출전했습니다.

고 안종열 단장이 동향의 고등학교, 대학 선배인 인연으로 내가 풀 기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련과 국교가 없는 우리는 직접 전화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인 안단장은

도쿄에 도착하자 마자 나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9월 1일 대소련전에서 우리 여자배구가 이겼습니다. 12명의 특과원들에게 벽에 붙여 놓은 순서대로 이 낭보를 알렸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로켓 벼락을 맞은 신형은 노발 대발하셨습니다. 나는 변명했습니다. ‘웃가리(무심히, 멍청하게)’ 빠졌었다고. 그러나 먹힐 리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신형과의 관계는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까지도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통의 스승 고 이해복 선생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한달 전 좀 KBS TV의 6·25 특집 ‘TV자서전’에서 서울신문 기자 신형을 거명하면서 ‘사건기자의 본보기’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신문기자, 방송기자이면서 신형은 학구적이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로서 ‘방송문장론’을 강의하셨고 ‘방송보도론’ ‘방송문장론’ 등의 역저(力著)를 남기셨습니다. 삼가 신형의 명복을 빕니다. [국문]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아버지와 아들, 형제가 이런 목적을 갖고 각각 다른 주군을 위해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인 경우가 허다 하다. 1701년 주군(主君)을 죽게 한 원수를 찾아 47인의 무사들이 벌인 성공적인 복수에 이어 전원이 활복한 사건을 그린 ‘주신구라(忠臣蔵)’에서 우리는 사무라이 정신이 뭔가 하는 것을 전율적으로 느낀다. 정유재란(1597)때 조선의 선비 강항(姜沆)이 포로가 되어 교토에 끌려가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에게 사서오경과 이황의 성리학을 전수한 뒤 조선성리학이 에도막부의 정통사상이 된다.

후지와라의 제자 하야시라잔(林羅山)은 조선성리학을 바탕으로 이른바 사무라이 정신을 체계화한다. 따라서 사무라이 정신은 임진왜란 전후(前後) 크게 차별된다.

그 후 1900년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가 ‘무사도; 일본의 정신(Bushido; The Soul of Japan)’을 영

문판으로 발간하는데 이 책자는 다시 일본어판으로 번역소개 되면서 크게 호응을 얻는다.

니토베가 정리한 사무라이 정신은 ▲주군에 충성한다. ▲부모에 효도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명예를 소중히 한다. ▲공정성을 존중하고 부패를 증오한다. ▲자신에게 엄격한다. ▲아랫사람을 배려한다. ▲패배한 적에게 연민의 정을 나눈다.

우리의 선비사상과 큰 차이가 없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사무라이 정신과는 차이가 있다. 이 책을 쓴 니토베는 현재의 일본화폐 5천 엔 초상화 인물이다.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종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적 행동의 전통은 오늘날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현재 위안부 등 역사문제 대처등에 있어서 잘못된줄 뻔히 알면서도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이런 전통의 하나로 보인다. [국문]

전자랜드 price KING
프라이스킹

한길만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전·자·랜·드

순수 국내 자본으로 26년간
토종 브랜드 전자랜드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에 힘이 되겠습니다.

대표 가전 양판점 전자랜드

1688-8000 / 고객님의 관심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연결됩니다.
080-870-8000 고객상담 센터 / 자세한 지식, 노하우 및 서비스를 만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가나다순

김영길(金永吉)



1939년 1월 25일 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9-3 월드메르디
앙아파트 101동 705
호

010-5309-7200

〈경력〉 KBS 제5기
아나운서 입사, 춘천 속초KBS근무(아
나운서) 기독교중앙방송 아나운서, 보
도국 체육부장, 몬트리올(캐나다)올림
픽 취재부장(대한민국합동방송단) 대
구 보도부장, 부산방송부장, CBS중앙
아나운서실장, KBS 방송위원

박갑술(朴甲述)



1943년 11월 19일 생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76 108동
1604호 (행신동 샘
터마을 1단지)

010-5275-7150

〈경력〉 CBS기자,
사회 1. 2부장, 문화부장 체육부장 과
학부장, 부산보도국장, 보도국 부국장,
마케팅 본부장, 현재 아트웨어 마케팅
대표 겸 자문역

전우벽(全遇壁)



1946년 3월 4일 생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산들로 210
방가시마을 610동
107호

010-3388-2222

〈경력〉 CBS 아나
운서실 차장, KBS아나운서실, KBS방
송위원, OSB TV 일본 이승엽 야구중
계(단독), KBS 사우회, CBS사우회 이
사

홍인근(洪仁根)



1935년 5월 3일 생
서울 성북 24길 52
010-2784-2456

〈경력〉 동아일보
사회부기자, 외신부
월남특파원, 도쿄특
파원, 정치부장, 편

집국부국장, 이사대우 편집국장, 이사
겸 기획실장, 고려중앙학원 상무이사,
국제한국연구원 연구위원(이사)

회우동정 가나다순

ABU공로패 수상



김인규(전 KBS사장)본
회 상담역= 지난 27일
마카오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ABU)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 상담역은
ABU회장 때인 지난 2012년 7월 평양
을 방문해 북한 조선중앙TV에 런던올
림픽 방송권과 함께 중계방송단 파견
을 지원해 북한 주민이 런던올림픽 경
기를 시청할 수 있게 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아 10월 문화산책 행사를 가졌다. 11
월 행사는 한국오페라단이 11월 8일
(토) 오후 3시에 공연하는 베르디 작
곡 오페라 '오텔로'를 관람 한다.

동해지명 국제세미나 종합토론



문명호(본회 주필)= 사
단법인 동해연구회와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10월26~29일 경주에서
열린 제20회 '동해지명
과 바다이름, 동아시아 평화' 국제세
미나 종합토론을 했다.

동해지명 국제세미나 기조강연



김진현(세계경제포럼 이
사장·동해연구회 고문)
회우= 사단법인 동해연
구회와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10월 26~29일 경
주에서 열린 제20회 '동해지명과 바다
이름, 동아시아 평화' 국제 세미나에
서 기조강연을 했다.

'영인문학관' 으로 문화산책



김 현(문화산책 청류회
회장)회우= 매월 1회 20
년 가까이 이끌어온 문
화산책 청류회 회원들과
소설가 최인호의 유품전
시회가 열리고 있는 영인문학관을 찾

'통일대박론' 주제 세미나



봉두완(한미클럽 이사
장·전 한국일보주미특파
원)회우= 10월 20일 미
국워싱턴 DC에서 '박
근혜대통령의 통일대박
론과 한미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는 문창극 전 국
무총리 후보자와 미국 측에서 KEI(한
미경제연구소)의 도널드 만즐로 소장,
리처드 루커 전 미 상원 외교위원장,
정치인, 언론인들이 다수 참가했다.

박정희 대통령서거 35주년 세미나

박범진(미래정책연구소 대표)회우= 지
난 10월 20일(월) 오후 2시 프레스센
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박정희 대통



령 서거 35주년을 맞아
'4·19세대와 유신세대
가 본 박정희'라는 주
제로 세미나를 개최했
다. 김도중 명지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토
론자로는 이신범 전 국회의원, 이장규
서강대 대외부총장, 조성환 경기대 정
치전문대학원 교수, 주익종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이 참여했다.

북한 3인방의 깜짝 방한 속셈 분석



여영무(뉴스앤피플 닷컴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
위원)회우= 뉴스앤피플
닷컴에 '북한 리수용의
유엔연설은 적반하장식
괘변' 등 시론 4편을 기고하고 '황병서
등 북한 3인방의 깜짝 방한 속셈'을
심층 분석.

세계한인 순국선열 추모식 주제



제재형 본회고문·박실
(전 국회의원)회우= 10
월 3일 현충원에서 엄
수된 제1회 세계한인
순국선열 애국지사 호



국영령 합동추모식에서
각각 조직위원장과 흥
보위원장으로 이 추모
식을 주재했다. 이 추모
식에는 흥원기 명예회
장, 김은구 회장, 윤석웅 회우등도 참
석했다. 이 추모제는 세계한인재단과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헌정회, 국가보훈처, 대한민
국해병대전우회가 후원했다.

2014 사회봉사대상 심사위원장



천상기(경기대 초빙교
수)회우= 제8회 대한민
국 2014 사회봉사대상
12개 부문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장에 위촉됐었
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Ndaily
news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와 보건
복지부가 협찬하는 시상식은 12월 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평화언론포럼 창립 9주년 세미나



최귀조(평화언론포럼 회
장)본회이사= 11월 2일
부터 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의 그랜
드캐년 태향산 대협곡
에서 평화언론포럼 창립 9주년기념으
로 2014년 하반기 해외세미나 겸 단
합대회를 갖는다. 이 행사엔 회원 30
여명이 참석한다.

회우 스마트폰 교육 실시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을 위한 스마
트폰 교육이 국가경영전략연구원
(NSI) 세미나실에서 실시됐다. 1차
로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스마트폰
교육은 지난 10월 8일부터 한 달 간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실시됐다.

▶ 주소·전화번호 변경 ◀

고두현 회우= 서울 용산구 이촌로 7길 한가람아파트 212동 3030호

권영국 회우= 010-5309-7200

김귀제 회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04, 1303 (우 1335-874)

김수남 회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6길 64-5 20길(우 121-880)

노재성 회우= 서울 관악구 봉천로 331-1 4층 401호(우 151-827)

박정진 회우=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우성앙브와즈아파트 1단지 101동 412호

임학수 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16 꽃메마을극동스타클래스
201동 1101호 (우 448-160)

장석훈 회우=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125번지 개릉리슈빌 아파트
1511동 303호

▶ 회우 자녀 결혼 ◀

백일진 회우= 11월 8일(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 에스티아웨딩컨벤션
8층에서 장남 결혼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4년 9월 30일 부터 10월 30일까지)

길윤석(14)	이상호(14)
김영길(입회비)	이종석(14)
김종범(14)	전우벽(입회비)
문명호(14)	장석훈(14)
박갑술(입회비)	정성진(15)
박광춘(15)	정준창(14)
박동은(14)	정창기(14)
신우식(14)	한중광(14)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현대자동차그룹 동행어 사전

동행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P184

ㄷ

첫운전

[First Driving]

● 생애 처음 자동차를 움직여보며 안전에 대해 배워보는 일

어린이들이 직접 차를 운전해보며 교통안전을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키즈오토파크'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합니다

{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활동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는 현대자동차그룹 }

키즈오토파크 www.kidsautopark.org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시, (사)한국생활안전연합과 공동으로 설립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에 주행교육장, 면허시험장 등 실제 교통상황에 가까운 교육환경으로 조성

동행으로 미래를 펼치다

HYUNDAI
MOTOR GROUP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철강, 건설을 중심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동행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무료 · 할인 관람

미술관 · 박물관 · 고궁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